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MAY 3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6 1983년 5월3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May 31,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김영삼씨 강제병원이송 처사에

전의원등 19명 동조단식

이민우 전국회부의장등 성명 "민주개혁요구 관철위해 투쟁"

〈서울 〉 이민우전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9명의 김영삼전신민당총재 지지자들이 김씨의 민주개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의식살아있는한 단식계속하겠다" 3당선 오세응장관 내세워 해결책모색

소식통에 따르면, 26일 상오 9명의 전신민당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이 단식투쟁중인 김씨를 서울대학병원에 강제이송시킨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김씨와 고통을 함께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성취시키기위해 단식투쟁을 실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4명이 이에 가담, 총19명이 단식을 벌이고있다는 것이다.

이들중에는 이민우전국회부의장이외에 황낙주, 박용만씨등 11명의 전신민당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서울대학병원에 이송된 김씨가 입원이틀째인 현재까지 일체의 음식과 의사진료를 거부하고있으며, 병원에 이송되기전 의식이 남아있는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정, 민한, 국민당등 3당지도자들은 25일밤 김씨문제해결을 위해 26일 모임을 갖겠다고 발표했는데 관측통들은 여당인 민정당이 정부당국과 대화를 갖지 않는한 김씨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을것으로 보이고있다.

3당지도자들은 금주초 김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회담을 갖고 25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었으나, 김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정당관계자들은 전신민당국회의원이었던 오세응정무담당무임소장관이 김씨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맡고 26일 중으로 김씨 지지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단식이후 자택연금을 받아온 58명중 28명은 감시원을 동반하고 직장을 오가는등 부분적인 옥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하보드 고교에서 있은 제2회 청소년 예술제에서 열창하는 박미애양. 그룹사운드 영·식스의 멤버인 박양은 이날 정열적인 노래와 몸짓으로 인기를 모았다. (기사는 2면에)

서울수개대학 반정부시위소문

시내중심가 곳곳 전투경찰을 배치

김영삼씨 단식투쟁관련 일련의 데모로

(서울외신종합) 김영삼씨의 단식투쟁과 관련 수개 대학교학생들이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서울시내 중심부 곳곳에는 27일 오후부터 수백명의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이 배치되었으며 학생층을 주요대상으로한 불심검문이 실시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1백여명의 대학생들이 시내 한 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즉시 진압되었고 6명의 청년들이 연행되어 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5/11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7.25%		6.75%
90일	7.50%		7.00%
180일	7.75%	8.25%	7.25%
365일	8.50%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라반행사 46개민족 참가

「서울관」위치 카톨릭정보센타

연례적으로 토론토에서 열리는 국제소수민족축제인 캐라반(Caravan)행사가 46개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6월17일부터 25일까지 토론토시내의 각국관에서 오픈된다.

복합문화주의 정책을 펴는 캐나다내에서 각소수민족의 민속문화를 소개하고 국제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카라반행사는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토론토 명물의 하나.

연초부터 이 행사를 위해 캐라반운영위원회를 결성, 준비해온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는 예년과 같이 「서울관」을 설치, 한국의 민속과 고유한 음식을 선보이고 민예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장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을 방문, 캐라반에 출품될 49개주요품목을 선정, 선적을 끝내고 돌아왔다.

오픈될 서울관 현관에는 태극기가 게양되고 천하대장군의 장식과 수문장도열로 입장객을 환영하며 관내에는 금년도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한복을 입고 안내를 담당한다.

특히 미스코리아 진인 유경희양은 자신의 특기인 한국춤을 소개할 예정.

이번에 출품되는 한국민예품은 2달러에서 10달러선으로 판매된다.

「서울관」의 위치는 830 Bathurst(at Bloor) 카톨릭정보센터(Catholic Information Centre)이다.

각국관에 입장할 수 있는 패스포트(Passport)를 판매하고 있는데 패스포트소유자는 대회기간중 어느 파빌리온이나 출입할 수 있다. 예매처 문의는 977-0466.

6월17일전에 예매하면 8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대회당일부터는 10달러이다.

일일패스포트도 각국관 현장에서 5달러씩에 구입할 수 있다.

한국선수114명 유니버시아드 출전

북한, 29일까지 참석여부 회답없어

(에드몬톤) 한국은 1일부터 11일까지 이곳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83(세계대학생올림픽)에 선수 114명과 옵저버 30명등 1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도착한다.

한국선수단은 임원·선수중 11번째로 큰 대표단이며

대회대변인은 29일 이번대회에 "주최측이 작년4월 북한측에 공식초청장을 보냈으나 마감일을 2일 앞둔 29일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고 말하고 텔렉스로 통고해 온다하여도 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드몬톤의 호텔과 수송관계는 각국이 예상외로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 혼잡이 예상되며 29일까지 94개국이 참가신청을 통고해 왔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외국國籍취득 교포 국내土地 소유토록

한국정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도 계속 한국내 토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과 이법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된다해도

政府시행령 개정검토 市民權취득전만 인정

1가구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 6백60평방미터(2백평)이하로 제한되고 외국이주후 취득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인정치않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정부, 3개항공협정 파기

중공여객기 납치범구속 보복조치

〈대만 〉 대만정부는 26일 자유중국의 차이나에어라인이 제안한 KAL과의 3개항공협정 파기제안을 승인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74년, 79년, 82년에 맺은 자유중국과의 항공협정으로 8편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있는데 이번 협약파기 결정은 한국이 중공여객기납치범을 모두 구속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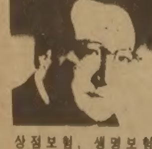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오메가시계
교포을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대소지입체
4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교민을 위한 교민의 은행

외환은행 장미적금 안내

기 간	계약액	월부금	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6.07	506.07
	1,000	162.88	12.14	1,012.14
1년	500	39.68	10.99	510.99
	1,000	79.36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14.84	514.84
	1,000	51.68	29.68	1,029.68
2년	500	18.92	17.93	517.93
	1,000	37.84	35.86	1,035.86

●500불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입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 13.97%

영업안내
□ 체킹구좌업무〈개인, 기업〉
□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 외환송금업무〈전신, 우편송금〉
□ 수출입〈신용장 개설, 통지, 매입〉
□ 대출업무〈개인융자, 사업자금〉
□ 모기이지〈주택구입, 부동산투자〉

뱅쿠버지점 9월중에 개점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하고 保証하는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C.D.I.C. 가입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블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뱅쿠버지점
ONE BENTALL CENTER #760
505 BURRARD ST. VANCOUVER
687-7322

젊은이들의 예술적자질 발휘

제2회 토론토 청소년예술제

컴컴한 무대 커튼뒤에서 울려나오는 변사 조성용의 구성진 목소리와 피터·송이 이끄는 그룹·사운드 영·식스의 음악등은 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8일(토) 밤 하보드고교 강당에서 3백여 교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제2회 청소년 예술제는 작년보다 정선된 프로그램으로 질서있게 진행되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관중이 적어 7백여 객석의 반도 못채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관객도 젊은층이었다.

"거의 한달간을 바쁜 시간을 쪼개 마련한 많은 프로들이 젊은이들만의 행사로 끝나기에는 뭔가 아쉽다"고 말한 한 출연진은, "이런 행사를 통해 토론토의 젊은 한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술제는 1부는 중창, 피아노, 바이올린, 오보에, 클래식 기타 연주등으로, 2부는 박력있는 영·식스의 사운드와 풍자 촌극 〈돌아온 이수일과 심순애〉로 엮어졌다.

유니폼을 입은 동불중창단의 노래, 민보련의 피아노 독주, 이진화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은 후, 흰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정장한 세 엔지니어(진영민, 유효석, 이해원)들이 출연, 클라식 기타곡을 연주, 많은 박수를 받자 이날의 사회자 이재용은 젊은 이들이 결코 전공분야에만 급급한 생활이 아니라 정서생활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세번째곡 〈이사도라〉는 유효석이 직접 편곡한 연주이었다.

한인교향악단원인 김미영의 오보에 연주가 이은주의 피아노반주에 따라 있은뒤, 기타를 메고나온 권혁일·유만식이 향토, 눈이 큰아이등 팝송을 불러 앵콜을 받았다.

이날 무대에 가장 큰 활기를 넣어준 영·식스가 흥겨운 리듬사운드와 함께 2부 첫번째로 등장하자 장내는 흥청이기 시작했다.

영·식스(김현규, 박미애, 송석호, 이성재, 송주원, 정경화)의 초점은 이날 처음 선보인 가수 박미애양. UT2년으로 박인순 전 한인회장의 딸인 박양이 율동적 몸짓과 다이내믹한 소리로 열창했다.

영·식스 멤버중 리더인 송석호(Peter)와 송주원은 얼마전 작고한 송중구씨의 아들들이다.

정광호 연출의 촌극 〈돌아온 이수일과 심순애〉는 신파극의 무대를 현대로 맞추어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를 풍자하는 줄거리.

특히 친구로 등장한 박성민의 의상, 발성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막간에 미도파백화점이 제공하는 광고의 여자수영복 모델로도 등장한 변사 조성용이 시종 구성진 어조로 줄거리를 엮어 나갔다. 중간 중간 배역들이 시추에이션에 맞는 뽕짝 노래를 곁들이고, 이수일·심순애가 서로 뺨을 때리는 장면은 슬로우·모션으로 처리하는 점등도 이채로왔다. (이수일 역 김명세, 심순애 김종미, 김중배 민태규, 친구 박성민, 구두닦이 이종범, 배경음악 영·식스).

8월중 토론토에서 있을 북미대학생회의 경비마련을 위한 이날밤 예술제는 관중과 출연진의 〈고향의 봄〉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인 합창단원들이 28일 열린 서부아프리카 난민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에서 박재훈씨 지휘하에 비발디곡 「글로리아」를 합창하고 있다.

한인합창단 자선음악회

소프라노 이주연·송경란씨등 출연

한인합창단(지휘 박재훈, 단장 문남주)은 28일 밤 메트로·폴리탄연합교회(The Metropolitan United Church)에서 캐나다교회협의회(The Canadian Council of Churches)주최로 아프리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가졌다.

공연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차드·니제르·오트볼타·마리·마리타니아·세네갈 등 서부아프리카 8개국가의 사하라사막 주변주민을 돕는데 쓰여진다. 입장료는 성인 7달러, 학생 3달러.

8시부터 10시까지 2부로 나누어진 이날 공연의 1부에서는 합창으로 몽금포타령, 새타령등의 한국민요와 박재훈곡 성마가수난곡의 마지막곡인 "We Believe", 소프라노 송경란씨, 테너 유인씨의 이중창으로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파스·칼드중에서 1곡과, 이주연씨의 독창으로 "내주를 찬양하리"등 2곡으로 엮어졌다.

비발디곡 「글로리아」 합창에서는 이주연씨와 신영자씨가 독창으로 출연했다.

이번 공연의 올갠반주는 유회자박사, 피아노반주에는 고도경씨가 각각 맡았다.

79년9월 창단된 한인합창단은 그동안 캐나다선명회(World Vision of Canada)후원으로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난민지원을 위한 기금모금 자선음악회를 3차례 가진 바 있다.

찰스황태자 캐나다방문

6월14일부터 18일간

(오타와)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나비가 캐나다데이를 축하하고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6월14일부터 18일간 캐나다를 공식방문한다고 트루도수상실에서 발표했다.

이들의 첫아들 윌리암왕자는 동행하지 않는다.

황태자부부는 왕실요트인 브리태니카호를 타고 헬리팩스에 도착, 3일간 체류로 시작,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한다.

캐나다탄생 116년기념일인 금년 7월1일은 다이애나비의 22회 생일이기도 하다.

찰스황태자부부의 캐나다방문일정은 다음과 같다.

14일 : 헬리팩스도착, 3일간 체류, 뉴번스위크 방문.

22일 : 뉴파운드랜드, 센죤스 방문

25일 :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방문, 기념식수, 오타와방문, 테리팍스센터방문.

29일 : 에드몬톤 방문, 유니버시아드 게임 개회식 참관.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교민동정

▲임병직=토론토총영사관의 현지채용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씨는 공인회계사 현영일씨를 통해 캐나다투자이민허가를 받았다.

제5계절

쓰레기통

최경자 (Parkwoods United Church 교육목사)

◆최경자목사

집안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자그만치 여덟개나 나온다. 세식구 사는 작은 집에서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쓰레기통을 몇개 없애 버리면 집안청소도 쉬워지고 쓰레기통 없는 방안은 한결 깨끗해 보일텐데, 그러면 손재주 부리는 우리아이 삭둑질 해놓은 종이조각이며 알려지로 고생하는 남편의 휴지며 꾸겨버린 원고지와 냄새나는 된장찌꺼기, 김치꽁지는 모두 어떻게 하나? 구석구석마다 쓰레기통이 놓여 있으니까 그나마 집안에 발 들여 놓을 틈이라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 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을까. 비운 쓰레기통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쓰레기통의 존재를 새삼 고맙게 느낀다.

몇년전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적이 있었다. 일주일에 두번씩 정해진 날짜에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워주곤 하다가 푹푹 썩는 여름에 몇주간씩 쓰레기를 쌓아 놓으니까 동네가 온통 쓰레기장 같은 냄새가 난다.

우리는 영양가 높은 좋은것을 많이 섭취도 하지만 쓸데없는것, 더러운것을 많이 버리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육체적으로는 자연히 각기관이 기능을 발휘해서 좋은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분배하고, 찌꺼기는 배설해 버린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양분과 배설물을 가려서 자양분은 인격과 지성과 정서를 살찌고 윤기나게 하고, 골치아프고 속상한 오물은 버려야 한다.

아무리 겉으로 곱게 화장을 하고 유명상품으로 온몸을 두루감아 치장을 해도 그속에 쓰레기가 많으면 안에서 썩는 냄새와 겉의 향수냄새가 혼합되어 더욱 얄궂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밸 꼴리는 일, 어처구니 없는일 등등으로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쏟아 놓아야 할텐데 문제는 적당한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다.

방사능 쓰레기를 남의 집 뒷마당에 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정신적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노릇이다. 잘못 쏟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덤핑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줄줄 새며 동네방네 냄새를 피우는 가십거리가 되기 일쑤다. 어디엘 갔더니 개구리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딱 벌린 입에다 휴지를 떨어뜨렸더니 "땡큐" 하고 받아먹는 시늉을 하고 쓰레기가 사라진다.

교민사회에서 여러가지 모임과 문화행사를 통해서 자양분이 풍부한 영양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것은 감사한 일이다.

여기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좀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좀더 활발한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배설물을 처리한 기관이나 모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개인문제, 결혼문제, 가정문제, 편모, 편부문제, 여성문제, 남편문제, 직업문제, 건강문제, 인종차별문제, 종교문제, 노인문제, 어린이 복지문제, 청소년문제··· 끝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심하고 시원하게 쏟아 놓으면 "땡큐"하고' 웃으며 받아먹는 어떤 전문적인 "정신쓰레기통"같은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상쾌할텐데.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3>

누가 惡魔인가 ④

남작코는 홍콩으로 국제전화 신청

마인은 햄버거를 먹으며 어둠속에 몸을 가리고 서 있었다.

길 저쪽 어둠 속에도 한 사나이가 서있었다.

그들은 세시간째 그렇게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현사는 순식간에 햄버거 한개를 먹어치운다음 다시 한개를 입으로 가져갔다. 몹시 배가 고픈 참에 먹는것이라 굉장히 맛이 있었다. 햄버거로 어느정도 배를 채우고나자 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았다.

그 집은 고급주택으로 골목 중간쯤에 자리잡고있었다. 이층 양옥이었는데 이층의 한방에만 불이 켜져있었다. 마인은 그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1시가 됐을 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마인은 얼른 뒤로 물러섰다.

자동차는 골목으로 꺾어들더니 헤드라이트를 껐다. 이윽고 그집 앞에 정차했다.

차에서 한 사나이가 내렸다. 옆집의 불빛이 사나이를 비쳤다. 안경을 끼고있었다. 대학교수 타이프의 사나이었다. 사나이는 대문으로 다가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사나이는 차를 골목에 세워둔 채 안으로 사라졌다.

마현사는 급히 그 쪽으로 다가갔다. 맞은 편에 서있던 사나이도 자동차 쪽으로 걸어왔다.

「그 자 맞나요?」

마인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는 마약전담반원으로 방금 안으로 사라진 사나이를 알고 있었다.

마인은 자동차 넘버를 수첩에다 적었다.

조금 후 두 사나이가 나타나 그들과 교대했다.

다음 날 아침 제5의 사나이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직접맞바꾸는데동의한다. 2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 여자를 홍콩에서 서울로 데려와 주기바란다.」

「물론 준비하고 있다. 전화만 걸면 당장이라도 오도록 되어있다.」

「그녀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다.」

「물론 그래야지. 그 여자 함께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소.」

「내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잔금은 1백달러짜리로 준비해주기 바란다. 백개씩 묶으면 백묶음이 될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모레 밤12시정각 H호텔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놀라서 묻는 사이에 전화는 끊어졌다. 남작코의 사나이는 어리둥절해졌다가 홍콩으로 국제전화를 신청했다. 5분도 못돼 통화가 시작됐다.

「제5의 사나이로부터 연락이 왔읍니다. 2월10일 밤12시정각에 만나기로 했읍니다. 그 여자를 홍콩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읍니다. 잔금은 백달러짜리를 백개씩 묶어달라고 했읍니다. 백만달러면 모두백묶음이 됩니다.」

「응 했나?」

「네, 준비하겠다고 했읍니다.」

「장소는?」

「H호텔 나이트클럽 입니다.」

朴 男 그림

"한국등의 쿼터량 줄여라"

퀘벡주 의류산업계 주장

캐나다 의류산업계의 7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퀘벡주의 의류계와 노동조합은 공동전선을 결성, 한국등 아세아 4개국의 의류수출증가에 대해 정부가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글로브 앤드 메일지가 26일 보도했다.

전국지인 이 신문은 이같은 동맹결성이 캐나다 의류업계 최초의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대표들이 퀘벡주 출신의 여당의원과 접촉,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여성복장노동조합, 텍스타일복장노동조합, 캐나다텍스타일연구소 및 퀘벡의류생산연구소를 중심으로 결성된 퀘벡노동자 연맹의 대표자는 1980년 이래 9,000여명의 의류노동자들이 이들 4개국의 의류수출증가의 여파로 직장을 잃었다고 항의했다.

자동차번호판 문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수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온타리오주내에 거주하는 모든 차량주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자동차번호 플레이트」를 구입할 수 있다.

6자로 구성된 알파벳과 숫자의 어떠한 조합(Combination)도 신청할 수 있으나 거친 용어, 욕설, 차별적 단어등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정부 교통통신 관계자가 밝혔다.

이 플레이트의 단가는 100달러로 가격이 비싸다는데 단점이 있다.

비지니스 소식란

은하보석상 시세이도화장품 판매개시

작년3월 일본화장품회사 시세이도로 부터 판매권을 획득했으나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던 은하보석상이 판매를 개시했다.

프랑스제 랑콤(Lancome)화장품 판매권도 갖고 있는 은하보석상은 지난 76년 차이나타운에서 개업한지 3년만에 장소를 블루어로 옮기면서 불황에 비교적 민감한 화장품판매업에 관심을 갖고 시장개척에 주력, 시세이도의 판매권을 얻게 되었다.

은하보석상 대표 김용섭씨는 그동안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것은 큰 백화점들의 압력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26일 말했다.

결혼축하

신훈용군(신용목씨 장남)
문안나양(문언기씨 차녀)
4일(토) 하오1시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
주례 : 이상철 목사
피로연 : 마스터스·레스토랑(310 Bloor St. W.)

윤인우(분도)군 (윤정회씨 장남)
김진숙(아그네스)양 (김종욱씨 장녀)
18일(토) 낮12시
한인천주교회 83 Power St.
주례 최규식(그레고리) 신부
피로연 하오6시30분 The Bristol Place, 950 Dixon Rd.(at Airport Rd.)

축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일간지발행 2주년기념

토론토 한국일보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축원하며,
더욱 교민사회를 위해 일해주는 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무역인협회 회장 이영현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비행거리 따라 一律的적용 "들쑥날쑥 航空料金 막겠다"

뉴욕거주 밀리센트·헬드만여인은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아리조나주 투손에 갈때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3백36달러를 지불하고 왕복비행기표를 샀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그녀의 동생과 동생남편을 만나 같이 갔는데 그들은 같은 항공사에 각각 3백41달러를 주고 왕복표를 샀다.

그러나 시카고에서 투손까지는 뉴욕에서 투손까지보다 왕복 1천4백60마일이나 짧은 거리인데도 이들은 각각 5달러나 더 비싼 요금을 지불했다.

미국 항공업계의 항공요금은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적지않아 항공업계종사자는 물론 여행사와 승객 모두가 혼란 속에서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항공업계는 이런 복잡한 항공요금의 구조를 바꾸어 비행거리와 비행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항공요금을 결정하는 새로운 국내선 요금원칙을 마련, 항공요금간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8년부터 실시된 요금자유경쟁으로 항공요금의 혼란은 물론 업계에 커다란 적자를 초래했던 항공업계는 새로운 항공요금원칙으로 이런 혼란을 없애고 지난 80년부터 누적된 18억달러에 이르는 업계의 적자를 흑자로 바꾸려는 것.

새로운 항공요금 실시에는 아메리칸 항공사가 선봉을 섰다.

이 항공사는 비행거리에 따라 항공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일반비행기표를 살때 비행거리 2백50마일 이하인 경우 마일당 53센트, 7백51마일에서 1천마일인 경우 마일당 25센트, 그리고 2천5백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마일당 15센트꼴로 항공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 항공사는 또 성인요금의 경우 1등석, 일반석, 25%를 할인해 주는 비성수기석, 그리고 항공권 예매시기와 체재기간에 제한을 두는 수퍼세이버의 4가지로 차등을 두고있다.

그러나 다른 대항공사들은 이 새 요금원칙에 별로 동조하지 않고 있다.

팬암측은 아메리칸 항공사의 요금 일률화가 기존경쟁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대변인도 아메리칸 항공사의 새로운 요금제도는 비성수기에 40~60%까지 내려간 항공요금을 25% 정도에서 그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항공」서 처음 시도하자 타사서 "경쟁심해 무용지물"반대

아메리칸 항공사의 요금제도를 채택한 US에어 항공사는 필라델피아와 세인트 루이스간 항공요금을 23종에서 8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와크와 웨스트·팜·비치의 황금노선을 달리는 이스턴항공사도 96가지 요금을 9가지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오메가 여행사도 아메리칸 항공사의 요금제도를 채택한 후 요금제도가 매우 간편해 작업시간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측자들은 이러한 제도도 특히 성수기 회사간에 경쟁이 심할때는 무용지물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피플 익스프레스 회사가 뉴와크-웨스트·팜·비치간을 99달러로 세일하고 있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이스턴 항공사는 3백마일 밖에 안되는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서 아틀란타간 노선에 86달러를 받으면서도 피플 익스프레스의 세일에 대한 1천29마일에 이르는 뉴와크-웨스트·팜·비치구간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99달러에 세일하고 있다.

팬암도 아메리칸 항공사의 새로운 요금제도 발표이후 요금을 인하했으며 TWA도 뉴와크-세인트 루이스간의 항공요금을 48%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업계분석가들은 항공업계의 간편한 일률적 항공요금제도가 당분간은 새로운 제도로 유지가 가능하나 판매촉진을 위한 요금경쟁이 가열되면 실시가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다이어트」심하게 하면 "精神장애 생긴다" 경고

〈스탠포드, 캘리포니아-AP〉 다이어트를 심하게 할 경우 감각을 잃고 혼수상태까지 빠질위험이 높은것으로 최근저서에서 드러났다.

스탠포드대학 키스·테일러교수는 다이어트가 당뇨병을 초래하거나 정신적 장애등의 증상을 일으킬수도 있다고 그의 저서 「임상영양」에서 경고했다.

그는 적어도 하루 1천2백칼로리는 섭취해야 하며 그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체의 신진대사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유기적인 신진대사를 막아 지방, 탄수화물등의 부산물이 체내 남게된다. 이 부산물이 합성이돼 정신장애나 당뇨병을 낳게되고 심지어는 탈수상태로 졸도,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는것이다』라고 테일러교수는 다이어트의 위험을 지적했다.

전기·전자수입품때문 3만개직장 상실

캐나다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전기및 전자제품 때문에 캐나다인은 1만4천내지 3만개의 직업을 잃었다고 연방정부의 통계가 밝혔다.

82년도 산업및 지역경제확장부 통계에 따르면 냉장고, 개스레인지, 디쉬워셔, 가정용구 및 라디오, TV등 전자제품분야의 제조업 직업수는 81년12월 139,365개에서 82년12월 125,161개로 줄었다.

여성문제 사무국장에 글레나·카여사임명

지난주 취임한 로버트·웰치 온타리오주 여성부장관은 24일 글레나·카(37)씨를 온타리오 여성문제이사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온타리오주정부에서 중진급 공무원으로 기용된 여성은 카씨를 포함, 12명밖에 없다.

카씨는 신설된 여성부의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초봉은 연봉 5만달러이다.

새 직책에 임명된 뒤 카여사는 우선 여성의 고등기술직훈련의 기회증가및 남녀의 임금차이를 없애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레나·카여사

125명이 회원등록 Y 토요프로그램

지난 4월중순부터 시작된 한인YMCA(총무 김창열)의 토요체육프로그램에는 125명이 회원으로 등록, 주말마다 Y회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하오6시부터 밤10시까지 웨스트·앤드·Y (931 College St. At Dovercourt)에서 한인전용으로 열린다.

회원들에게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라켓볼, 탁구, 수영장등 각종 체육오락시설과 탈의실, 사우나, 월·풀, 증기탕(스팀·배스)등이 개방된다.

한편 한인Y는 체육프로그램외에 토요법률상담(강찬영 변호사 담당), 수영강습, 영어연구클럽, 무용교실, 컴퓨터강좌, 조킹·클럽 구성등을 계획중이다.

"평범한 부부가 매력적인 커플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존·허드슨박사발표

평범한 커플들이 매력적인 커플들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있다.

『매력적인 커플들은 그들의 결혼을 지켜가기가 훨씬 어렵죠』라고 아리조나주립대학의 존·허드슨 박사는 말 다.

『잘 생긴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를 기만할 기회가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반면 매력적이 못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같은 유혹이 적지요.』

또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매력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같이 신체적인 매력에의 의존은 결혼생활의 다른 중요한 면을 무시하게 된다고 허드슨박사는 말한다.

사실 이같이 매력적인 커플들과 이혼의 비례관계는, 헐리웃을 보면 단박에 알수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헐리웃의 결혼생활는 거의가 평탄치 못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생활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음에 반해, 매력적인 사람들은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생각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란 단지 피부 한꺼풀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관계는 두사람의 마음입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 매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 질투를 느낀다고 허드슨박사는 말한다.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J. SHIFMAN & SONS LIMITED
54 Wingold Avenue, Toronto, Ontario M6B 1P5 • (416) 781-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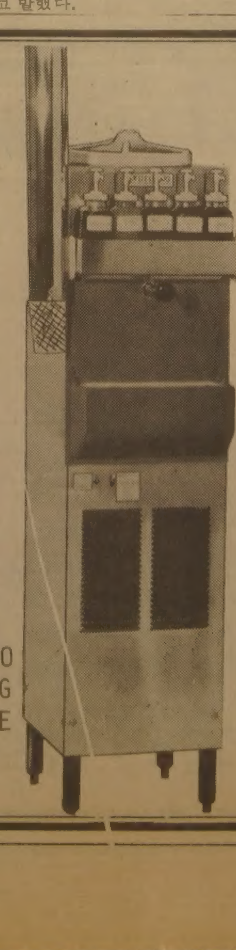
당신 자신의 기계를 소유할 때는

75% PROFIT

판매이익은 75% 이상 입니다.

□5병 및 펌푸
□1컵의 조제툭
□밀받침대도 포함되었음

※기계싸이즈는 15인치 × 15인치로써 일체 물이나 배수구가 필요없음.
아무 플러그에나 낄 수 있음(간단하게 사용편리)
자세한 내용은 ☎781-6667로 연락바람. *담배, 캔디, 종이류도 전문취급



** MODEL 100 STOELTING SLUSH MAHCINE

〈90일간 모든것 일체보증〉

「자동차 옵션」이 고급·다양해 졌다

말하는 컴퓨터 경보장치까지

마춤 승용차

오늘날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다. 그래서 잘만 선택하면 특별주문으로 「마춤승용차」를 소유한 기분을 가질수도 있다.

각종시트, 카세트, 파워윈도우는 물론 말하는 컴퓨터까지 옵션은 다양하다.

최신옵션은 컴퓨터로 작동되는 전자컴퓨터경보장치. 운전도중 엔진상태나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즉각 구두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컴퓨터옵션에 대해서는 이미 포드와 크라이슬러가 컴퓨터를 부착한 말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있으며 일제차인 니산맥시마도 말하는 컴퓨터를 옵션으로 제공하고있다.

특히 크라이슬러는 운전자의 질문에 반응하는 컴퓨터시스템까지 고안중이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땡큐」라고 말하는등 11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설계하고있다.

자동차의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운전자의 안락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동차가격이 비싸지고있다. 고급승용차의 풀옵션(full option) 비용이 보통 경제적인 소형차가격에 해당할 정도다.

옵션종류가 극히 복잡해지고 그비용도 늘어남에따라 자동차구입에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도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옵션의 선택은 「개인에 알맞게」 이루어져야한다며 특히 옵션비용도 고려해야된다고 지적하고있다.

현대의 자동차에 설비된 옵션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

전문가들은 흔히 소비자들에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옵션을 권유하고있다.

1.자동 안전벨트시스템(passive—restraint system)—운전자가 문을 열고 좌선에 앉으면 자동으로 안전벨트가 채워진다. 운전자가 일일이 버클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문을 열고 내릴때도 역시 자동으로 안전벨트가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2.미끄럼방지장치(limited—slip differential)—자동차 출발시나 회전시 미끄럽거나 물에 젖은 표면에서도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뒷바퀴에 장치되어있음.

3.반자동와이퍼(Intermittent windshield wiper)—약간의 비나 눈이 내릴때 유리창와이퍼가 간헐적으로 작동된다.

4.할로겐헤드램프(Halogen Headlamp)—야간에 장거리 하이웨이를 운전할때 헤드라이트의 고장률을 감소시킨다.

5.자동조광기(Automatic dimmer)—야간에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때문에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운전차량의 광량을 알맞게 조절한다.

6.외부백미러—자동차 밖에도 백미러를 설치, 리모트콘트롤하며 작동시킴. 특히 뒷좌석에도 사람이 탑승 실내백미러의 시야가 가리울때 효과적임.

7.서리제거기(window defoggers)—자동차 앞뒤유리창은 물론 옆유리창의 서리를 제거한다.

◆보이지않는 부분에 설치된 옵션(Undercover Option).

파워스티어링이나 파워브레이크같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설비되었지만 자동차의 안전도와 안락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1.디젤엔진—개솔린엔진보다 마일리지가 높으나 추운날씨에 시동을 걸기가 힘들고 순발력이 없고 가격이 비싸다. 디젤유를 갖춘 주유소를 찾기도 힘들지만 엔진의 수명이 길고 연료효율이 높다.

2.수동변속기(Manual Transmission)—역시 개스마일리지를 높이고 특히 5단기어는 연료효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나 번거롭다.

3.코팅(Coating)—먼지를 방지하고 엔진의 페인트 색을 오래 유지시키며 특히 엔진의 소음을 줄인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코팅을 5년간 개런티해주나 먼지방지용코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현재는 차바디에 칠한 페인트의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코팅이 인기.

4.소형스페어타이어(small spare tire)—오늘날의 자동차들은 비상타이어로 규격미달의 소형타이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뒤트렁크의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규격에 맞는 스페어타이어를 따로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관계.

신형자동차에 마이크로 전자장치가 등장 이미 말하는 자동차시대가 다가와있다.

1.여행컴퓨터(travel computer)—장거리여행시 남아있는 연료의 양과 주행할 수 있는 거리 … 계수로 알려준다. … 균속도도 전달해 … 크라이슬러는 자동 … 변경되는 캘린더 … 지 제공.

2.도표컴퓨터시스템(graphic reporting system)—말하는 컴퓨터가 … 난 운전자에 엔진 … 배터리충전연료, … 크등 각종 상태를 … 로 그려서 보여준다.

◆안락도

1.에어컨디션 — … 인기있는 옵션으로 … 가격이 급증했다. … 공장에서 설비된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은 6백~7백50달러.

2.색깔이 들어있는 창문(tinted glass)—강한 햇빛을 차단,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나 키큰 운전자는 유리창끝의 진한 색깔로 시야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3.자동속도유지기(cruise control)—장거리여행 특히 하이웨이를 주파할 때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케해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필요가 없음. 그러나 고장이 잦고 단거리나 혼잡한 거리에서는 부적합하다.

4.안락의자(Adjustable & reclining seats)—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의자를 전후좌우로 움직여 운전자의 안락도와 편리함을 조절. 특히 기억력 장치가된 자동조절의자는 특정운전자의 최고안락 위치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자동차의 안전도와 안락도를 위한 옵션은 상당히 다양해, 잘만 선택하면 마치 특별주문한 「마춤 승용차」를 소유한 호사스런 기분을 즐길수있다. 사진은 배우 어네스트·보그나인부부의 초호화판 「마춤자동차」. 일반적 각종옵션 이외에도 냉장고, 바, 컬러TV, 전화등을 갖춘 16만달러짜리 벤츠승용차다.

안전·안락도 좋아졌지만 가격 너무비싸 그림의떡

"사망률 높은「면역결핍증」 美國의 최우선 보건문제"

보건후생성 원인·치료방법규명에 최대노력

연방정부 고위관리는 21일 체내의 면역체제를 마비시키는「면역 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 미국 공중보건분야의 『최우선 보건문제』로 등장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보건후생성 에드워드·브랜트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는 그간 AIDS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미 AIDS자체에 관한 연구와 그 예방책등 모두 여섯개분야에 연구자금을 배상했으며 금년에만도 1천4백50만달러의 자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서 산하 각급보건소에 AIDS로 간주되는 모든 질병의 케이스를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브랜트차관의 공보관은 최우선 보건문제는 보건후생성의 모든 인력과 자금이 AIDS문제에 집중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직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은 AIDS는 주로 남자동성연애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다.

전국질병통제센터는 지난 81년이후 AIDS환자를 예의 주시 지금까지 1천4백50명이 환자로 집계됐는데 그중 71%가 동성또는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은 남성, 17%가 정맥주사를 통한 마약남용자, 5%가 하이티이민자 그리고 1%가 혈우병환자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AIDS는 치사율도 대단해 1천4백50명환자중 38.5%에 이르는 5백58명이 이미 사망했다.

미국의학잡지들은 지난 수주일간 AIDS가 동성연애자 이외에 이성간의 성관계로 전염이 가능하며 또 성인과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도 전염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브랜트차관은 AIDS환자와 일반대중의 일시적인 접촉으로도 이병이 전염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않아 대중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9월 토론토방문

교황요한바오로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상초유로 내년도 캐나다를 공식방문한다는 발표에 따라 캐톨릭관계자와 정부당국자는 준비에 부산하다.

토론토교구의 카터대주교는 26일 내년 9월14일부터 2일간 토론토시 창립제150주년을 기념, 공식방문할 것이며 캐나다에는 10일간 체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26일 교회대표, 연방정부, 주정부, 토론토시당국, 경찰관계자들은 교구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영접및 미사, 경호관계등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다.

토론토교구의 마가렛·통대변인은 현재 100만이상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미사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또한 토론토 방문시 미국 뉴욕주, 버팔로 등지에 살고 있는 폴랜드인들이 본국출신의 교황을 만나기 위해 대대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참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황방문의 공식일정은 6월말경에 확정된다.

〈연재소설〉

홍도 ㉜

글 이대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유리를 시켜 조사장에게서 10만불을 받아온 애자는…

비밀을 지키는 댓가로 만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온 나는 아파트문을 두드렸다. 아직 이른 새벽 탓인지 유리는 얼른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문을 더욱 세게 두드렸다. 유리가 잠이 쏟아지는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이 언니! 어떻게 된거야?"

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들어가 식탁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김사장님이 화내지 않았니?"

"화가 뭐야, 난리가 났었어. 조사장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오는 거야?"

"내가 조사장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김사장님이 아니?"

"알긴, 어떻게 알아?"

"그럼 됐어. 유리는 조금있다 조사장을 만나고 돈을 받아 와."

"돈을?"

"그래. 10만불이어야 되니까 꼭 세어봐야 돼."

"언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게 아니지?"

"나도 꼭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 몸서리치는 악몽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

내 머릿속에는 악몽처럼 기억되는 지난밤의 일이 되살아 나고 있었다.

"언니, 답답해 죽겠어."

"좋지 않는 일을 아는 것은 모르는 것 보다 못해. 나는 좀 자야겠어. 조사장에게 돈을 받는 것을 잊으면 안돼. 내가 조사장을 만나던 호텔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어."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몸을 침대위에 던졌다. 신열이 나고, 몸이 욱씬욱씬 쑤셔왔다. 서울의 남산밑에 있었던 우암운명감정소의 영감이 말한 의인이 어제밤 나를 구해준 지렁이잡이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닐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진작 깊은 잠에서 깨어나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다.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다가는 잠이 들고, 잠이들면 전화벨 소리가 깨어 놓았다. 한참동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달리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야? 애자야?"

김사장의 목소리였다.

"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갔다 왔어."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어제 오후에 잠깐 외출을 했다가 길을 잃었어요."

"너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네가 간 곳에는 전화도 택시도 없었어?"

"너무 당황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말도 안같은 소리 집어치워. 집에 들어왔으면 왜 연락을 안해? 너 요즈음 행실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도로 가고 싶어?"

전화가 뚝 끊겼다. 잠이 확 달아나고 속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다.

(나는 죽을려다 살아났는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속에서는 화가 용암처럼 끓어 올랐다.

(가라고 하면 가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럴수가 없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얼마나 벼르고 벼르다 왔는데 이대로 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짓밟히고 수모를 당했는데 이대로 갈 수가 있는가?

나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돌렸다. 김사장께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

"여보세요?"

김사장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화가 엉겨 있었다.

"저예요. 애자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해."

김사장은 무뚝뚝하게 말을 끝맺고 전화를 끊었다.

할수 없어서, 내가 아쉬워서 전화는 했어도 역겹고 불쾌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뒤로도 한참동안이나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커텐을 걷었다.

만추, 가을은 시내의 여기저기에 불을 질러놓고, 녹색의 여름을 태우고 있었다. 밝은 창공과 단풍을 앞세우고 성큼 다가선 가을의 풍경을 보면 내 마음도 타고, 감상에 젖을 것같기도 한데, 내 망막에 비치는 가을의 풍경은 별다른 감명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언니, 언니? 돈을 받아왔어. 조사장에게서 돈을 받아왔어."

유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유리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언니, 어떻게 조사장을 주물러 놓았기에 그렇게 맥을 못추어?"

유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돈은 어디에 있니?"

"핸드백 안에 틀림없이 모셔져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유리는 핸드백을 열고 수표를 한장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니? 현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면 뭐유?"

"수표지 않아."

"그렇게 은행에서 확인한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믿어도 될까?"

"그런 걱정은 말고 빨리 은행에다 집어넣어."

유리의 장담에도 완전히 의심을 털어버리지 못한 나는 두겹으로 곱게 접어진 수표를 펴보았다.

볼펜으로 적어진 수표위에는 확인이라는 영문스탬프가 굵직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액수난에 아라비아 숫자로 씌어진 0들을 1단위부터 세어갔다. 일, 십, 백, 천, 만, 십만, 틀림없는 10만의 숫자가 또박또박 씌어있었다.

"유리, 고마워, 정보제공과 심부름의 댓가로 만불을 줄께."

"만불이나!"

유리는 입을 벌리고 서있었다.

"그대신 유리는 비밀을 지켜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에게도 알려면 안돼. 고기들이 미끼속에 낚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 더이상 물지 않기 때문이야."

유리는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언니, 그 수표를 어떻게 할거야? 은행에 집어넣으면 안돼."

"왜?"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던 유리의 엉뚱한 질문에 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반문했다. (계속)

한국일보 533-2361

노년회 관광안내

새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읍니다. 온 겨울동안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 펴시고 다 함께 모여 체리농장에서 그리고 싸파리동물원에서 우리의 웃음을 한껏 터뜨려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푸짐한 식사와 함께 갖가지 프로와 상품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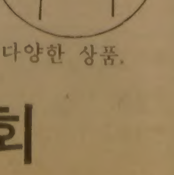
일 시 : 1983년 6월 25일/오전 8시 30분
출발장소 : 크리스티 써브웨이 공원 앞/아침 8시 30분
회 비 : 1인당 20불
신청마감 : 6월 17일/선착순 80명
준 비 물 : 카메라
문 의 : 755~8079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제2회 듀람한인실업인협회 골프대회

당협회에서는 제2회 교민친선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7월 9일(토)
■장 소 : KEDRON DELLS GOLF CLUB
(약도참조 · RITSON RD. NORTH RR5 오샤와 728-6641)
■인 원 : 120명 선착순
■마 감 : 6월25일
■연락처 : 이창수(☎ 579-3684) 김덕수(579-9899)
진경호(728-7118) 조정대(723-0981)
■시 상 : 그로스 1.2.3등, NET A,B,C조 각 1.2.3등
행운상, LONGEST, NEAREST, HONEST, 기타 다양한 상품.



듀람한인실업인협회

한국일보

"서울總會 北傀방해 대비를"

全대통령、IPU代表團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6일낮 헬싱키에서열린 제1백32차 국제議會연맹(IPU) 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權正達국회내무위원장(단장)등 대표단13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제 남은문제는 서울총회개최를 거듭 확인한 IPU의 정신을받들어 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될수 있는한 많은회원국의 많은 대표가 참가해 IPU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금자탑을 세우는 서울총회가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北韓의 IPU 서울총회 개최방해공작가능성에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조하면서『北韓공산집단은 그들의 모든공작이 수포로돌아갈경우 특수부대의 투입을통해 정세 혼란등을 유발할지도 모르는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이 IPU理事會한국대표단을 접견하고있다.

警察官 복무규정 閣議, 改正案의결

국무회의는 26일 경찰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과 銃砲, 刀劍, 화약류단속법개정안등 14개 法令개정案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와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무시간중의 음주및 民事분쟁의 부당한개입을 금지하는한편 管外여행을 하려고 하는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케하는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임시國會 계속異見

3黨總務재론키로

民正 民韓 국민당등 3黨총무들은 26일상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제1백17회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명간 다시 회담을 열어 再論키로했다.

회담이 끝난뒤 李鍾贊民正총무는 『야당총무들로부터 6월초에 제1백17회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안제출등 정부측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이기때문에 26일의 黨政조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총무회담을 다시열어 民正黨입장을 전달키로 했다』고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총무는 오는 6월7일에서 9일 사이에 會期15일내지 20일간의 임시국회를 소집, 본회의에서 對정부질문을 벌이고 국회법, 지방자치제, 糧穀관리법개정안등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李民正총무는 현재 小委에서 다루고있으며 『국회법개정안문제는 현 小委에서 6월중에 중간결산을 해보고 더 시간이 필요하면 정기국회에서 심의, 연내에 결론을 내려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大기업與信 大幅축소

금융緊縮 강력추진 年內 15~30%線까지

금융긴축을 강력히 추진해온 정부는 은행의 편중여신을 아울러 시정하기위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연내 15~30%까지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5개 시중은행이 각 거래기업체의 당좌대월을 포함해서총여신액의 15~30%까지 감축계획을 세워 오는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5개시중은행은 지난 4월중 1차로 거래기업의 당좌대월한도를20~30%까지축소했었다.

26일 韓銀에의하면 대기업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연말총통화(M2)증가율을 15%이내로 축소하며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대기업에대한 편중여신을 대폭축소키로하고 오는연말까지 각은행별로 대출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韓銀은 대출규제및 감축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릴방침이다. 지난5월상반월(8~22일)에도 3개시중은행이 지준부족을일으켜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해 연말현재 국내1백대기업의 대출액은 1조9천8백96억원이며 1백37개계열기업군 1천4백54개기업의 총대출액은 10조원에 달해 전체민간여신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개시중은행은 韓銀의 지시에따라 각기업체별로 여신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시달했으나 각기업은 26일 현재까지 대부분 감축계획을 제출하지 않고있어 각은행도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있다.

이계획에따라 감축될 대출액은 2~3천억원이 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중앙청時代下幕

博物館개축따라 어제 引繼引受

숱한 榮辱의 역사를 안은 우리나라「행정의 1번지」中央廳에 국립中央博物館이 들어서게된다. 중앙청건물관리에대한 引繼引受가 26일 이뤄짐에따라 정부수립이후 35년만에 「중앙청시대」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넘어가게 됐다. 총리실과 총무처의마지막 이삿짐 화물차가 부산히 움직이는 가운데 李振羲문공, 朴贊鉉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 문공부는 이에따라 오는 31일부터 중앙청건물과 厚生館에 대한 관리를 맡게되며 오는7월 중앙청본관건물을 박물관으로 改築하는 공사에들어갈 예정이다.

【金龍逸기자찍음】

固定간첩 2개網 8명檢擧

安企部발표 서울·春川등거점 暗躍…5명拘束

국가안전기획부는 26일 기술연수를 구실로 日本에 건너가 북괴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서울과 春川을 거점으로 암약해온 고정간첩 金成圭(43·朝鮮新藥상무) 吳柱碩(50·전 새시대 수퍼체인 이사) 宋錫敏(33·D건설富平공장 기계주임)등 일당7명과 마카오로 우회침투한 간첩 金炳珪(52·馬山극동중장비학원 원장)등 2개 간첩망 8명을 검거, 이중 5명은구속,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安企部는 이번에 검거된 간첩의 특징은▲북괴는 국내거점책을 이용, 친척·인척중에서 포섭대상자를 물색했고▲미리 書信암호를 약정한다음 편지를통해 대담한 공작을 전개했으며▲濟州道가 국제자유지역으로 개방되면 이를 對南공작전기지로 이용코자했으며▲해외영주권을가진 교포들을 국내사업을가장, 침투시킨것등이라고 밝혔다.

安企部는 2개 고정간첩단의 검거사실을 발표하면서 北傀가 내부적으로는 金正日의 실권장악에 따른 권력암투와 경제난국및 전쟁준비강행으로 국민의 불만이 한계에 다달았으며 가을의 IPU서울총회, 85년 IMF총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 올림픽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저지하기위한 간첩책동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북괴의 유언비어유포와 선전선동에 현혹되는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金成圭

◇金炳珪

◇吳柱碩

◇宋錫敏

◇安敎度

國會대책등 論議

어제黨政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26일하오 三淸洞 총리공관에서 黨政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1백17회 임시국회대책과 올해 夏穀收買價문제등 國政전반에 관해협의했다.

이날회의에서 李範錫외무장관은 지난번訪美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부측에서 金相浹국무총리 金竣成부총리 李외무 盧泰愚내무 姜慶植재무 吳世應정무장관과 鄭順德청와대 정무1수석 金在益경제수석 비서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이, 民正黨측에선 陳懿鍾대표위원 王相殷중앙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鄭石謨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沈相宇총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토지去來 申告의결

국무회의는 26일 國土이용관리법개정안을 의결, 토지의 投機的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있고 地價가급격히 상승할여지가있는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에서 土地등의 거래계약申告구역으로 지정할수있게했다.

日 東北지방에 強震

리히터 震度7·7 20명死亡…非常事態선포

【東京=宋孝彬특파원】26일 낮12시께 일본 아끼다(秋田) 니이가따(新潟)등 동부및 北海道지방에 진도5(리히터·스케일7.7)에 이르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석유탱크가 균열되고 집이 무너져 주민20명이죽고 1백명이 행방불명됐다.

이날 진도5로 기록된 아끼다縣에서는 발전소에 불이 일어나 작업중인 인부1명이 소사했으며 니이가따에서는 석유탱크 4개가 균열되는바람에 석유가 사방으로 흩어져 흐르기도했다.

이밖에도 北海道와 일본근해에서는 파고 2m에 이르는 심한 파도가 일어 어선9척이 행방불명되고 낚시꾼 18명이 실종됐다.

또 동북지방을 달리는 新幹線과 전철도 지진발생과함께 모두 운행이 정지됐다.

이번지진은 5년전 미야기(宮城)縣에서 일어났던 리히터진도 7.4도의 지진보다 심한 지진으로그동안 모두 16번의 작은지진이 일어났었다.

언론인 洪承勉씨

享年56歲… IPI委員등 역임

언론인 洪承勉씨(사진)가 26일 하오2시15분 세브란스병원 별관728호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56세.

서울태생인 洪씨는 지난54년 서울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55년 한국일보기자로 입사, 58년 한국일보편집국장, 61년 IPI위원, 62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同편집국장, 이사등을 거쳐 지난80년부터는 德成여대 사회학교수를지냈다.

洪씨는 지난1월부터 지병이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를받아왔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李恭媛여사(53·서울음대기악과교수)와 슬하 金植군(20·서울工大전자과2년)과 奈美양(22·梨大작곡과4년)등 1남1녀가 있다.

洪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28일상오10시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거행된다.

장지는 경기南楊州郡和道面琴南里선영. 연락처(392)0161영안실 1662(자택)

◇故 洪承勉씨

연탄값 안올려

徐動資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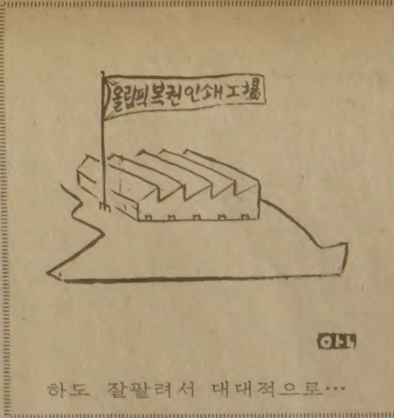
정부는 금년에는 연탄값을 올리지않을방침이다.

徐相喆 동자부장관은 26일 民正黨 정책위심공분과위에서 『석탄값의 인상등으로 서민용 연탄값의 引上要因이 생기더라도 연탄생산업자에 대한 보조등을 통해 금년중에는 현행연탄값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회의에서 動資部는 가스사업법개정안, 高壓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液化석유가스관리법안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대해 설명했는데 民正黨의원들은 이들법안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문제를 다루는법안이지만 사고가났을경우 책임한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않다는점등을 지적, 별도로 小委를구성, 계속 심의키로 했다.

의원들은 또 석탄의滯貨현상을 해소하기위해▲低質炭의 안정적공급이 이뤄지도록 발전설비를 改善하고▲석탄專用 발전소를 건립하며▲정부의 석탄 備蓄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社會漫評



하도 잘팔려서 대대적으로…

地平線

먹으라는것도 많다. 이번엔 호주에서 양고기를 들여온다고하니 말이다. 갑자기 양고기 얘기가 튀어 나와 어리둥절한듯하지만 알고보면 5년전에도 양고기를 들여왔으나 고약한 냄새와 기름기로 외면당했던 기억이 난다. ▼양고기를 꼭 사들일바에야 우리나라에서 양을 더많이 길러 보는것이 좋을성 싶다. 지리산 기슭인 南原郡雲峰面에는 朴대통령재직시 韓濠합력으로 만든 면양목장이 있다. 여기에서 키우는 양은 綿羊은 山羊인 염소와는 다르다. 이번에 반달곰이 죽은 雪嶽山에 서식하는 野生羊인 羚羊은 지금의 면양原種이라고 볼수있다. 옛날우리민족이 濊貊이라고 불렸을때부터 면양을사육했었다고한다. 高句麗나 新羅때 白馬, 白牛, 白羊을 길렀고 女眞族인 金國에서 수천마리의 양을바친 史實도있다. ▼朝鮮시대에와선 「北學議」에도 제단에 바치는 양이 부족한데, 소보다 양기르기가 빠르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다가 1904년에 프랑스 사람이나 중국사람 손을 빌어 몽고양을 기르기도했다. 일정때는 平康에 牧羊場이 생겨 몽고양을 길렀고, 그후 미국에서 메리노종을 들여왔다. ▼1933년엔 「南綿北羊」정책으로 면양 70만마리를 한국에서 기를수 있다는 조사결과에따라 뉴질랜드産 코리데일을도입, 대대적으로 사육을 권장했다. 明川郡에 總督府 種羊場이 먼저 생기고, 順川·開豐·慶州에 官營種羊場, 惠山鎭·明川에 民營농장이있었다. 해마다 5천마리가량 種羊을 들여와 면양의 수가 4만5천마리를 넘은해도 있었다. ▼2次大戰과 6·25로 면양사육은 중단되다시피했으나, 미국의 원조로 52년 慶州에 다시種羊場이 생겼다가없어지고, 지금은 大關嶺에 純種羊場, 濟州에 이스톰牧場, 南原에 雲峰牧場이있는데 모두합해야 1만마리가 못된다. ▼이렇게 면양사육의 역사는 짧지않은데, 무턱대고 손쉽다고 양고기 도입부터 착상하는것은 생각이 짧아보인다. 날로 늘어가는 모직물 원료수입, 육류부족은 생각하면, 소처럼 초식동물인 면양사육을 이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필요가 없는지궁금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입맛돋는
YAMASA
SOY
SAUC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김순근과 ADD-K 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OTTA BUTTERFLY
국제탁구대회
MASSEY HALL
*한국, 중국, 미국, 서독,
그리고 캐나다 선수출전.
●6월15일(수) 오후6시30분 $5.00
●6월16일(목) 오후6시30분 $5.00
●6월17일(금) 오후7시 $7.00
판매처 한국일보사(☎533-2361

새한칼라
확장이전
인사말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1일부터 아래주소로 이전확장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인덕 올림
이전일 : 6월1일
새주소 644 BLOOR ST. W.
(신용조합 건너편)
전화 535-7772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개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개백반	3.50
		순두부찌개백반	3.50
		된장찌개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공고

본 한인회에서는 금번 교민사회 및 자라나는 2세들의 연구자료를 위한 교민실태를 연방정부 협조하에 실시케 되었는 바, 우리의 귀여운 자녀 몇명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유선으로 몇가지 문의가 있겠사오니 교민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호응,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 장순채

社說

또 間諜 2個網

간흉하고 악랄한 북괴의 對南간첩 침투사건이 적발될때마다 분노와 우울속에 對共경각심을다시 가다듬지 않을수 없게된다.

26일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서울·春川據點 간첩 金成圭일당사건」과 「마카오 迂廻浸透 入北간첩사건」은 북괴의 음흉한 파괴공작이 더욱 간교화하고 다양화했음을 주목케한다. 또 이번사건에 드러난 북괴 책동의 특징은 한편으로 발전된 「簡易공작 수법」과 다른 한편 海外長期체류자를 포섭하는 「문어발식 공작」을 두드러지게하고 있다.

서울·春川거점 간첩사건의 경우는 技術研修및 産業界視察등으로 渡日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國家機密탐지보고, 地下黨조직상황보고등 간첩활동을 자행케한 것이다. 관련자들은 대체로 在日朝總간부들을 인척의 소개로 만났다가 甘言利說로 꾐받고 포섭되어 패가망신한 꼴이다. 개중에는 엉뚱한 「양다리 걸치기」「事業기반 다짐」이니 「불편불만에 의한 동조」등 동기가 산견되었다고 한다.

마카오迂廻浸透 入北간첩사건은 海外에 永住하면서「中繼무역」이나 「資金조달」차 북괴공작원과 접촉했다가 入北교육을 거쳐 永住歸國한후 기밀수집이나 同調者포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북괴가 政府의 開放政策을 악용하여 僑民·海外就業者·旅行者·留學生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증거다. 게다가 북괴는 앞으로 濟州道가 國際自由港으로개방되면 이를 對南工作의 前進基地로 이용할 것을 획책중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기적으로 북괴는 안팎으로 난국이 중첩된 느낌인데, 그럴수록 突破口를 對南간첩침투및 파괴활동에 찾고자 광분할것이 내다보이고있다. 그들 내부의 權力알투와 經濟難局 그리고 民心離脫이 가중되는 한편 南北韓의 國力隔差가 날로 심화될수록 북괴는 초조감에 추동되어 수단방법 불문의 간첩·파괴활동에 광분할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우리는 對共경계심을 진작하면서도 국민和合의 기조는 늠름하게 다져나가야 할것으로믿는다. 수상한자에 대한 申告정신의 발양과 더불어 不純煽動에 附和雷同하지않는 自重自愛의 일깨움을 강조해마지않는다.

交通安全 法은 있으나…

自動車의 생산과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부쩍늘어서, 이로 말미암은 人命피해와 財物손실은 이대로 방치될수없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자동차사고는 언제나 不幸한일이지만, 더욱 한심스러운것은 자동차수에 비하여 사고발생건수가 우리의 경우 두드러지게 높은 사실이다. 우리의 사고율은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할때에는 先進國들에서의 그것보다는 10배에서 20수배까지 터무니없이 높은것이었다.

이와같은 국제비교에서 통감하는것은, 어떻게든 자동차사고는 막아야하며, 그대부분은 막을수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多角的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고원인의 93%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인것으로 당국의 통계는 밝히고있다. 차량점검·安全교육·능숙한 운전기술 및 교통규칙준수는 交通安全法上 운전자의 의무인것이다. 그러므로 사태개선을 위한 최대의 열쇠는 운전자가 쥐고있다고 할것이다.

사고로 行人의 死傷이 잦은것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이다. 步行질서가 문란한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하겠다. 특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네명중 거의 한사람이 14세이하의 어린이였음은, 父母의 보호와 初中學校에서의 교통안전교육 미흡을 示唆하는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제도·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차량점검예행등은 당국의 시책과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도로와 차량성능 및 步行秩序도 이를 안전운전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역할이 더 커야한다.

그런만큼 관계당국은 모처럼 제정한 交通安全法의 철저한 시행을 기약하기 바란다. 이번에 정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과 집행, 그에따른 재정투자는 정부의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한다.

交通安全法은 있으되 交通安全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性差別 撤廢의 다짐

세계에서 89번째로, 지난 25일 한국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했다. 이협약은 지난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뒤 81년9월3일자로 발효된 것이다.

전문 30개조로 돼있는 이협약은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특히 평등의 법률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협약은 남녀차별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문제로 규정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협약의 목표를 내걸고있다. 그 상당한 부분은 아프리카나 중동같은 개발도상지역의 상황을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남성과 똑같이 참여할 권리나 「모성보호」 교육기회의 균등이다.

그러나 이협약은 또한 금융상의 차별처럼, 미국에서도 문제되고있는 조항을 포함하고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여성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있는 것이다.

우리 처지에서 보자면, 그중 상당부분이 아직도 해결해야될 숙제로 돼있는 문제와 관련돼있다. 예를들어 협약15조는 법앞에서 남녀가 평등해야되며, 특히 민사문제에서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16조는 가족제도안에서 여성이 불리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밝히고있다. 우리 호주제도나, 아직도 일방적인 자녀양육권과 부부의 재산권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짧지 않은 논쟁의 경험을 쌓아온 것들이다. 이번에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일단 공식적으로「불평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셈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은 여성도 남성처럼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협약 11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노동에 있어서의 평등」은 이러한 인식위에 서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에 있어서의 평등은 크게 노동과 노임의 평등 두가지다. 우리의 경우 82년말 현재 5인이상 고용업체 노동인구의 36.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여성의 지위향상도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여성취업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73%는 중학교졸업이하이고, 게다가 노임도 남자의 절반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렇다고 「협약」하나로 해결될수있는것도 아니다. 우리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협약14조가 강조하고있는 「평등」은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해야될 목표라고 할수있다.

그런 뜻에서 협약서명은 「선언적 의미」가 짙은것이지만, 어쨌든 문명사회에 어울리지않는 법률적 불평등은 한시바삐 고쳐야된다. 가족법이나 민법의 해묵은 논쟁에 이제는 결말을 내야된다. 적어도 법의 테두리만은 평등의 틀위에 앉혀놔야한다.

우리에게 「불평등의 철폐」는 인권문제일뿐 아니라, 심각한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강조해야할것이다.

濟州를 기뻐한다

내년 少年體典이 濟州에서 열린다. 금년 全州대회의 흐뭇한성과못지 않게 기꺼운 소식이다.

濟州 섬에서 그 처럼 규모 큰 행사를 벌이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것 만큼이나 획기적이다.

그 만큼 濟州 道勢가 커졌다는 얘기다. 우리들 마음 속의 濟州가 가까와졌다는 얘기도 된다. 그 기쁨을 50만 濟州 道民과 함께 하고 싶다.

1만명이 넘는 선수·임원이참가하는 少年體典의 주최는 웬만한 市·道勢를 가지고도 벅찬 일이다. 그러나 濟州사람들의 두터운 인정과 향토애, 그리고 굿굿한「三無精神」은 그만한 과제쯤 삭이고 남으리라 믿는다. 우리로서도 처음있는 濟州잔치에 응분한 힘을 보태고자한다. 정부와 체육관계자는 물론 다른 市·道에서도 성원 있기를 기대한다.

少年體典은 濟州발전의 새로운 계기가될것이다. 그 성공에 힘입어 全國體典 유치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濟州가 「외딴섬」이기를 그칠날이 멀지 않아 온다.

全州에 모였던 어린이들의 再會약속을 우리도 唱和한다.

『내년 濟州에서 만납시다』

시리아、이偵察機 격추

戰爆機투입 요격도…戰雲고조

레바논 1개旅團증파 美소식통

【베이루트·텔아비브AP·UPI=聯】시리아의 地對空 샘미사일이 25일 레바논의 베카계곡을 정찰중인 이스라엘의 無人정찰기를 격추시키고 시리아전폭기들이 또 이스라엘전투기들에 대해 空對空미사일로 先制공격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지난6월 終戰이래 또 한차례 전쟁으로의 길을 열어놓았다.

레바논의 국영 베이루트방송은 이날 미사일에 맞은 이스라엘정찰기가 베이루트 동남쪽 40km 베카계곡의 예치네읍동쪽에 추락했다고 말했는데 한 민영방송은 이 정찰기가 空對空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AP=聯】시리아는 레바논에 육군1개여단을 증파하고 팔레스타인 게릴라 2개여단을 새로 창설한것으로 보인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증파된 시리아軍 1개여단이 베이루트와 다마스커스를잇는 간선도로 부근에 위치한 잘레에 배치됐으며 새로 조직된 팔레스타인 게릴라 2개여단중 1개여단은 이스라엘 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알벡북부에 주둔하고 있다고밝혔다. 군사분석가들은 이러한 사태전개가 최소한레바논에 계속 머무르려하는 시리아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當事國 自制토록 美국무성 촉구

【워싱턴UPI=聯】美국무성은 25일 이날 레바논상공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시리아항공기들간의 공중전에 관해 논평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은 최대한의 자제심을 발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엘살바도르 美군사고문단 부단장 被殺

【산살바도르UPI=聯】엘살바도르에 파견중인 美군사고문단 부단장 알버트·쇼펠버거씨(32)가 지난25일밤 산살바도르에있는 대학교정에서 좌익게릴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의해 머리부분에 4발의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미대사관대변인이 26일 밝혔다. 쇼펠버거씨는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파견한 모두 55명의 육·해·공군사고문단부단장으로 해병대 정예부대출신의 중령으로 알려졌다.

페루、非常사태令

首都일원 反政시위에 軍투입

【리마(페루)AP=聯】약7천명의 페루기동경찰이 25일 새벽 그들의 경찰본부를점거, 反정부구호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함에따라 페루정부는 이날 수도 리마와 인근 카야오港일원에 3일간 비상사태를선포하고 이지역에 군대를 투입했다.

抗命기동경찰은 자정이 조금지난 이날새벽 최루탄과 공포를발사하면서 대통령관저에서 가까운 그들의 본부건물을 점거하고 인접도로를 봉쇄한후 처우개선과 反정부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페루정부는 이에따라 수도일원에 3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기간중 시민들의 일부자유가 유예된다고 선언했다.

이란大使館 직원3명 追放

蘇, 외교관축출에 보복 兩國관계最惡

【테헤란AFP=聯】소련은모스크바주재 이란 대사관직원 3명을 추방했다고 이란의 테헤란방송이 25일보도했다. 테헤란 방송은 소련이범법행위를 했다는혐의로이란외교관3명을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파리학생 流血데모 모두 1백31명부상

【파리AFP=聯】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의 사회당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법안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데모진압경찰사이에 24일밤 파리시가지에서 벌어진 유혈충돌사태로 1백31명의 경찰관과 수십명의 학생이 다쳤다고 프랑스관리들이 25일 밝혔다.

治安본부 자리에 총리실廳舍 신축

朴총무처 밝혀

정부는 앞으로 적당한시기에 현재의 治安本部자리에 국무총리실廳舍를 新築하고 美대사관이 다른곳으로 옮겨가면 이건물에 외무부가 입주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朴贊兢총무처장관은 26일 중앙청건물인수인계식을 마친뒤 『87년경 果川정부종합청사 3·4棟이완공되면 또한번의 정부廳舍移轉계획이 불가피하다』며 『도시계획에따라 현재의 치안본부건물이 철거되면 그자리에 총리실 청사를 지을 계획을하고있다』고 밝혔다.

女性지위向上에 進一步

여성차별철폐協約 서명의 意義

정부가 26일 국제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한것은 男女차별이 점차 사라지는 세계적추세에 맞춰 여성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한 宣言的의미가 있다.

이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모든분야에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性의 동등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의해 7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어 현재 89개국이 서명했으며 비준서까지 기탁한 당사국은 49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협약에 가입하면 1년뒤부터 협상상의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실현하기위해 당사국이 취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협약가입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기에 앞서 이협약정신과 상치되는 각종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

우리나라 國籍法은 父系혈통주의를 택하고 있기때문에 兩系주의를 주장하는 이 협약과는 어긋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족및 상속제도, 교육및 고용관계에서도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있어야하며그 밖에 여성에게 불편을주는 행정및 사법적인 제도와절차도 개선돼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이 협약가입은 국내적으론 여성들의 지위를 크게향상시키야하는 의무를 주는동시에,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국제협력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개방사회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다.

前文및 本文30개조로 구성된 이 협약은▲여성에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사법, 행정조치를 취할의무 ▲남녀의 사회적 문화적행동 형태의 개조 ▲여성의 인신매매및 매춘에 의한착취금지 ▲여성의 참정권및 국제적 정부를 대표할 기회의 평등▲부인및 자녀의 국적취득및 상실에 있어서의 평등▲교육, 근로조건,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평등 ▲경제적 사회적 평등▲법앞의 평등▲혼인및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보장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有利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의각종 국내법을 정비할 계기를 갖다준다.

남녀平等실천 조치 유엔에 報告의무

각종 국내의 差別制度도 改革되어야

엄밀한 의미에서 이협약은 법률뿐만아니라 제도및 관습에 있어서까지 남녀간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의 모든 조문을 당사국들이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이유로 이협약은 당사국들의 국내법과의 상충을 고려, 상충조항을 유보한채 가입할수있는 길을터 놓고있다.

아랍국가들은 이슬람법전인 샤리아와 위배된다는 이유로 남녀평등의 입법체계를 요구하는 2조와 혼인및 가족관계에서의 동등권을 규정한 16조를 유보한채 가입한 예가 많으며 프랑스의경우는 9개부분의 적용을 유보한채 당사국이 되기도했다.

그밖의 자유진영 국가들도 대부분 1~2개조항을 유보했으며 공산권국가 상당수는 29조1항(중재재판및 국제사법재판소에의 분쟁부탁)을 유보하고 있어 이협약의 완전한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는 남녀평등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父系혈통주의인 國籍法과 친족법상의 호주제도 상속법상의 남녀차등조항등은 이협약과 마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국내여성운동단체들의 이러한 불평등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儒林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점을 감안한다면 民事上의 남녀동등권을 주장한 이협약 15조와 國籍얻고 잃는데있어서 同等權을 규정한 9조는 유보될가능성이 높다.

외무부는 이협약의 서명에 앞서 법무·보사·노동부등 유관부처와 협의를거친것으로 알려졌지만 男尊女卑사상이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우리현실에서 국회의 동의를 쉽게얻을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 협약의 서명국이 89개국이나되지만 체약당사국은 49개국에 불과한것도 각국이 이협약의 기본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법과 제도의정비가 간단치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서독등 선진국들도 서명은했으나 아직 비준서를 기탁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여성권익향상을 내세운 제5공화국의 정책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길 희망하고있는데 정부가 몇개조항을 유보하더라도 일단 체약당사국이 된다면 한국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될것은 분명하다. 【李在武기자】

申本社副會長 마거리트公主환담

엘리자베드2세 영국여왕의 동생인 마거리트 공주가 25일 런던시내의 길드홀에서열린 국제신문발행인협회(IFNP)를 위한 만찬회석상에서 申英秀 한국일보부회장㊧과 환담하고있다. 가운데는 洪璡基中央日報회장. 【런던25日AP電送=聯】

정부、여성차별철폐協約 서명

정부는 26일 유엔결의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관한 협약」에 서명했다.

金瓊元駐유엔대사가 서명한 이 협약은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男女차별을 배제하고 남녀동등권및 여성의 기본적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가족법, 상속법등에 男女차별조항이 있기때문에 이협약가입을 보류해왔었다.

編輯人協 세미나 27~29일 釜山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5월27일부터 29일까지 釜山코모도호텔에서 「국제화시대-한국언론의 새 좌표」란 주제로 제19회 매스컴세미나를 갖는다. 전국의 일간신문·통신사 편집국장과 방송의 보도국장등 30여명의 편집간부들이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선 漢陽大의 吳鎭煥교수가 주제를 발표한다.

人事異動

商工部 ▲産業政策官室(산업진흥담당) 李哉吉▲〃담당(유통경제담당) 鄭光善▲金屬課長 金永哲▲電子政策課長 蔡暻錫(23日字)

兵務廳 ▲기획관리관 李鍾培(大邱지방병무청장)▲병무감독관 金豊治(기획관리관)▲大邱지방병무청장 金秉圭(병무감독관)(26日字)

政局往來

後世에 교훈적 建物로

26일상오중앙청건물 引繼引受式에서朴贊兢총무처장관과李振羲문공장관은 文書에署名, 교환한후 잠시 환담.

李장관은 『중앙청건물을 세계에서도 유수한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며 『건물보다 내용물의 충실이 문제인데…』라고 박물관의장래를 걱정했고 朴장관은 『현재의 국무회의실을 그대로 유지, 보존해 後世에 남겨 역사의 한 場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

朴장관은또 『국무회의실의환등기, 커튼등도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보존하고 국무위원명패로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계인수서에는 인계대상날이 世宗路1번지에 있는 중앙청본관과 別館, 후생관등으로돼있고 建坪과 대지의 면적을 坪이아닌 평방m로 표시했으며 인계인수일자를 5월31일로 明記.

結論없이 입장만 開陳

잠정 延期說속에 26일상오에열린 3黨총무회담은 6월임시국회소집에 대해 與野가 서로 입장開陳만 한채 결론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회담후 李鍾贊 民正黨 총무는 『아무 준비없이 나왔는데 요새 신문들이 작문을 많이 하는 입시국회를 양당총무들이 6월초에열자고 하더란』며 누누히 얘기 했지만 준비가 미진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결론없는회담경위를 발표. 또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이럴수록 모든 문제를 院內로 수렴해야하므로 국회소집을 촉구했다』며 『오늘은 국회소집 문제를 다룬 첫 공식모임으로 民正黨이 방침을 정해 총무에게 일임하면 될것』이라고 설명.

한편 李民正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을 않기로 했다가 연데 대해 『野黨총무들이 黨의 주장을 완강하게 얘기하겠다고 해 對話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 나왔다』고 말했는데·李東鎭국민당총무는『국회소집문제는 여당총무혼자 결정할 事案이 아니잖느냐』고 한마디.

3黨 총무들은 이날 회담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점심을 함께 나누며 계속 얘기를 나눴다.

국회소집에 陽動作戰

民正黨은 6월중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大原則을갖고 있으면서도 野黨의 요구와 주장이 많을경우 이를 再考한다는·陽動作戰을 하고있는 눈치.

權翊鉉사무총장은 26일 『국회를 열어도 좋고 열지않아도 좋지만 국회를 열면 뭔가 생산하는 국회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며 『우리도 나름대로의 생각을갖고 있지만 野黨이 6월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먼저 알아볼필요가있다』고 느긋한 표정.

李鍾贊총무 역시 『소집여부를 速斷할수는 없으며 黨政정책조정회의결과를봐야 윤곽이 나올것』이라고 말했는데, 주요당직자들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가 혹시나 野黨을 자극할것을 우려, 金瑢泰대변인은 『6월국회소집원칙에는 변함이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열어도좋고 열지 않아도좋지만 열면 생산하는 國會돼야〃

〃정치는 信義가바탕〃

民韓黨은 6월 국회소집문제와 관련, 여당측에서 야당이 소집을 不願하고 있는듯한 발언을 한데대해 불쾌한 反應.

柳致松총재는 이날 李泰九·辛相佑부총재등과함께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를 여당이 과연 열겠다는 것이냐』고反問한뒤 『정치는 信義를 바탕으로 해야지 책임을 야당으로 돌려버리려는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라고못마땅한표정.

또 林鍾基총무는 『정부법안이 아니더라도 다뤄야할 議案은 많다』면서 6월국회소집을 촉구했고 李義永의원은 『民正黨이 정부를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꼬집었다.

한편 柳총재는 24일 蔡汶植국회의장 초대로열린 3黨대표會同에 대해 『결론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가지얘기가 충분히오갔다』고 傳言.

韓中관계 雜音없을듯

中共여객기被拉사건과 관련 최근 自由中國이 납치범6명과의면담요청및 그들의 자유의사존중요구에 대해 외무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정신으로 처리한다는 毅然한 자세.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자유중국측은 납치범들의 행동이 자유추구이지 비행기납치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정치적亡命을 허용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헤이그協約의 당사국으로 협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치 않고 망명희망지로 보낼 수는 없는것』이라고 설명.

이 소식통은 또 『최근 자유중국이 납치범들의 처리문제에 있어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여 韓中관계가 어색해지는듯 했으나 지난 23일 李範錫외무장관이 薛毓麒駐韓대사에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한후로 臺灣측도 불만의 소리가 잠잠해 졌다』면서 韓中관계에 더이상의 雜音이 없을 것임을 시사.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KANATA

컴퓨터 · 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푸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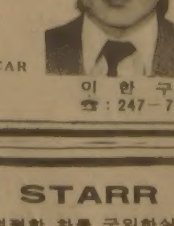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Grant Brown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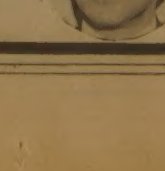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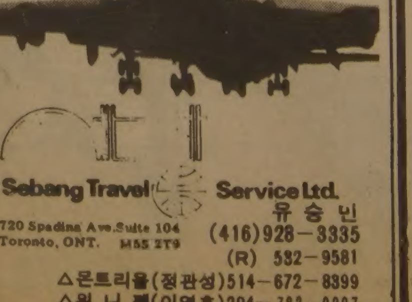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 승 빈
(416)928-3335
(R) 532-9581
스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스위니펙(이영호)204-783-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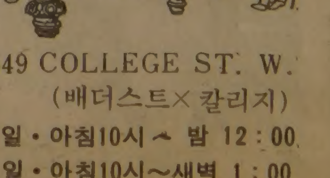
Oriental Recreation Centre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죠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ㅁ한국인의 당구대회예약환영
ㅁ특별봉사



549 COLLEGE ST. W.
(배더스트×칼리지)
평 일 · 아침10시~ 밤 12:00
토 · 일 · 아침10시~새벽 1:00
924-5597

日「技術이전」에 딴전만…

"主體는 民間기업"내세워 정부級 협의체구성 반대

실속없이 끝나버린 韓日貿易실무회의

【東京=宋孝彬특파원】3년4개월만에 일본외무성에서열린 제16차 韓日무역실무자회의는 관심의 초점인 기술이전문제에대한 일본측의 무성의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틀 예정이던 이실무자회의는 지난25일 하루를 더연장하면서까지 對日무역불균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위한 정부級「韓日산업기술협력위원회」설치를 제의했으나 일본측이 한사코 이를 거부, 결국 이문제를 계속협의한다는데에만 합의하고 26일 폐막된것이다.

金炳連한국측수석대표(외무부亞洲국장)는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의 對日무역적자가 2백40억달러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지난 1월 발표된 韓日공동성명정신에 따라 기술이전을위한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기술이전문제는 민간기업이 주체라는 점을들어 정부레벨의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체구성에 끝내 반대의사를밝혀 무역 실무자회의가 무위로 끝난것이다.

물론 일본측 주장대로 첨단기술의 주체가 일본의 민간기업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본의 산업진흥과 무역의 확대가 일본 通産省관료주도하에 이뤄지고있는 점을 생각 한다면 기술이전의 주체가 단순히 민간기업체라는 점을 들어산업기술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일본측이 반대하는것은 이해가가지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행정지도」라는 이름아래 보이지않는 관료의 손에 의해 수출증대와 수입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생각해볼때 한국측이 제의한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정부級협의체구성은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세력은 다름아닌 일본의 통산성(상공부)이다.

통산성은 大藏省과 협력하여 일본의 기업체를 지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번 무역실무자회의에는 무역과 기술이전의 행정 최고실무책임자인 통산성과 대장성의 관계국장이모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의 주체가 민간기업에있다는 명목을 들어 한국측이 내세운 「산업기술협력위원회」설치를 반대한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式일수 밖에 없다.

일본은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이 지난1월 한국을 방문, 全斗煥·나까소네공동성명에서 韓日간의 산업기술협력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실시하기위한 협의체구성에 반대했다. 돈이안드는 말만의약속에는 쉽게 응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행동에는 딴전을 부리는속셈이 다시한번 드러난셈이다.

韓日간 경제협력관계는 문자그대로 일본의 對韓시장화로 일관되어 있다.

국교정상화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은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을 모두합쳐 40억달러. 이는 그동안 한국이외국에서 도입한 전체차관의15%에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취급, 공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에는 항상 인색해왔다.

李漢春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은 이날회의에서 對日무역역조를 시정하기위해일본측은 참치와 活鮮魚등50개품목에대한 관세율의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그리고43개에 이르는 일반특혜관세(GSP)에대한 확대및 완화조치를 요구하면서 3차례에 걸친일본의시장개방은 歐美를향한 개선 조치일뿐 한국의관심품목은 이에 포함되어있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金泰俊 기계공업국장은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이전에의한 산업의水平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품개발을위한 부품구매전시회개최, 첨단기술의 對韓이전등을 제시, 한국이 생각하고있는 무역불균형시정을위한 의견을 솔직히 개진했다.

회의는 GATT等 국제회의에서 韓日양국이 협력할것과 플랜트수출등 제3국시장개발에 협력하며 과학기술의정보교환을 합의하는등 다소간에 성과가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韓日양국의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이전에 적극협력해야한다는 성의는 끝내나타내지않은채 이번회담은 끝났다.

구속된 固定間諜 5명의 犯罪사실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고정간첩 5명의개인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日시찰 研修중 마카오現地서 포섭
濟州道 自由港대비 工作거점 준비

…서울·春川 간첩사건…

▲金成圭=80년 11월초 일본 중소기업협업집단화 시찰을 구실로 일본에 건너가 당고모인金鍾珠(52·구속)의 주선으로 在日북괴공작원 安敎胤(52·일본福島縣朝總聯·初中級학교장)·金文子(46·조총련初中級학교사무원) 부부와 접선했다.

그후 安敎胤으로 부터 귀국후 중부지방 ○○비행장의 시설및 경계상태를 보고할것과 ▲製藥업계 동조세력규합 ▲지하당구축▲출소左翼죄수·데모주동학생을 포섭,渡日주선▲濟州道의 공작거점화를 위한 준비등을 지령받고 소형카메라,공작금15만5천엔(한화46만원)을 받아 80년11월15일 귀국했다.

국내잠입후 81년2월~9월사이 6번에 걸쳐 지방출장을 다니면서▲○○지역의 비상활주로 및 군·경합동검문실태▲○○비행장시설·경계상황▲中小기업의 도산실태등을 파악, 편지로 安에게 보고했으며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동향인을 대상으로 친목단체인「탄금회」를 조직,반정부세력으로의 규합을 기도했다.

▲吳柱碩=6·25때 북괴군 보급대에 편입되어 부역했으며 9·28수복이후엔 경찰에 위장투신, 8년간 근무하다 春川에서 새시대수퍼체인 영업이사등 지역유지로 행세했다.

80년5월 일본 유통업계시찰단으로 渡日하는 기회를 이용, 安敎胤을 만나 사상교양을 받았으며 일화17만5천엔(한화52만원)을 받아 80년5월25일 국내로 돌아왔다.

귀국후 春川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一回甲契」「七年會」등을 조직, 수시로 모임을 갖고 10·26사태등 국내 주요사건에 관한 유언비어를날조·유포하며 민심교란을 노렸다.

80년6월이후 서울~春川간 검문실태, 군부대위치, 임진강북쪽 전방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실태등 기밀을 탐지보고했으며 82년10월~83년3월사이에는 春川시내 군납업자들의 군납실태, 春川H여고의 반공교육실태등 국가기밀을 수집보고하는등 간첩활동을 했다.

▲宋錫敏=78년8월京都소재 阪村기계 제작소에서 기술연수교육을 받기위해 도일,장모인 金鍾珠의 주선으로 북괴교직원인 安敎胤과 접선하고 적화통일때 자신의출세가 보장되리라는 망상아래 간첩행위를 할것을 서약했다.

23만엔(한화69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78년11월9일 귀국한다음 78년 11월~79년 9월사이 자신의 근무처인 富平부근 군부대의 위치 및 병력 훈련및 경계상황등을 탐지, 安에게 알렸다.

81년11월부터 약1년간 D건설 원자력발전소 고압용기제작에 관한 교육에 참여함을 기화로▲韓電원자력발전소9호기와 10호기의 건설공사실태 ▲D건설의 원자력발전소및 長城댐 건설참여상황및 규모등 국가기밀을 탐지·보고하는등 간첩행위를 했다.

▲金鍾珠=일본에있는 조카 金文子(安敎胤의처)가 조총련의 핵심멤버인 것을 알면서도 둘째사위인 宋錫敏, 조카 金成圭와 吳柱碩등을 安·金부부에 접선토록 주선하는등 간첩활동을 도와왔다.

…마카오회간첩…

▲金炳珪=64년 마카오로 이주한뒤 북괴공작원에게 포섭되어 75년6월 中共廣州북괴공관에서 金日成생일축하편지등을 작성, 제출하고 공작지령을 받았다.

75년9월 北京을 통해 入北, 평양에서 세뇌교육을 마치며 홍콩달러10만달러(한화1천만원)를 받아 마카오로 돌아가 한국음식점「高麗屋」을 차려 대남침투의 공작거점을 마련하고 교민실태를 보고했다.

◇萬5천여년前의 매머드 머리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작년여름 앵커리지 북서부의 한 금광부근에서 발견된 1만5천90년전의 매머드 머리부분을 발굴하고있는 모습. 이 매머드는 머리부터 상아끝까지 길이 2.4m, 양쪽귀간의 길이 역시 2.4m의 거상으로 빙하활동이 미약한 시기에 화산재에 묻혀 죽었기에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것. 【메어뱅크스(美알래스카州) UPI聯合】

청소년들 非行은 부모過보호 원인

청소년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렸을때부터의「엄격한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현대부모들의「過보호」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또다시 日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점점 난폭해지는 西歐型 청소년비행에 골치앓는 일본의 도오꾜(東京)都청소년문제협의회(회장 鈴木都지사)는 25일 청소년선도대책을 위한 중간보고를 통해 격증하는 청소년비행 원인을『자정에서의 過보호와 가정교육에대한 무관심탓으로 어린이들이 자립심을 상실한채 성장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聯合】

海外토픽

아프간侵略 보도 蘇아나운서 증발

모스크바방송국의 영어방송아나운서 블라디미르·단체프는 지난23일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보도하면서 5차례나 蘇聯침략자들에게 아프간이 소련침략의 희생자라고 표현한후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다.

단체프의 이같은 보도는 지난 18일에 세번, 그리고 23일에 두번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으며 마침내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가 26일『미국이 아프간反혁명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식입장을 정정했다.

모스크바방송관계자들의 주장대로『개인적인 실수』라고해도 단체프는 소련방송에『용서받지 못할일』을 저지른 셈이다. 【UPI】

우리時代의 名컬럼니스트

—作故한 洪承勉씨의 生涯

술 좋아한 秀才…「메아리」첫 執筆
美프로野球 소개 開拓者이기도

◇1960년 아이젠하워美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때 한국기자대표로 오끼나와까지 가서 그를 면접하고있는 洪承勉씨.

26일 작고한 名칼럼니스트 洪承勉씨는 타고난 언론인이었다. 1954년 서울大社會學科를 졸업한후 이듬해 한국일보社에 입사한 그는 뛰어난 명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3년후에는일약편집국장의중책을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아직 촌티를 벗지못하던 50년대에 세련된칼럼과 단평을 도입,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한국일보 독자들의 사랑을받아온 1면의「地平線」이나 3면의「메아리」같은 고정 칼럼의 틀을 확립한것도 그의공로였다. 이중「메아리」는 지난해부터 記名칼럼으로 확대되었다.

洪承勉씨를 잘아는 친구들은 이미 학교때부터 유능한 문필가가 될 소질을 보였다고 말한다. 그와 京畿高41회 동기생인 출판인 崔哲海씨(正音文化社대표)는『承勉이는 근본적으로 명석한 수재였으며 고교때부터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말하고있다.

박식한 洪씨는 모든부문에 뛰어났으며 한국일보社에 입사하기전에는 합동통신사에서 기자모집을했을때 2백40명의 경쟁자가운데 그 혼자만이 합격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꽁생원같은 수재가 아니라호걸풍의 수재였다고 崔씨는 회상한다. 친구를 좋아해 언제고 만나면 밝은술 흐린술을 가리지않고 술을 마셨으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식도암진단을 받고서도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런「全人的 성품」은 그의글 어느 대목에서나 찾을수있다. 해박하고 유력한 문화비평을 즐기는 그는 또 거친 스포츠에도 많은관심을 보였다.

洪씨는 어찌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개척자라고 할수있다. 그는 1957년 한국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財團장학금을받아 미국 스탠퍼드大에 유학하면서 일요판칼럼으로「美國雜記」를 썼는데 여기서 미국의 프로야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민주화된 대중사회의 진정한「종교」가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그「우상」들을 소개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는 한국프로야구의 정착기인 제2년의 첫시즌이 시작될 무렵 불치의 병에 걸려 전기리그의 열기가 절정에 도달할 무렵 눈을 감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방향을 일깨워준 그의 글들은 우리나라언론계와 문화계의 자산으로 길이 남을것이다.

1962년 東亞日報 논설위원으로 취임한 洪씨는 新東亞주간, 東亞日報편집국장및 東亞日報논설주간등을 거치는 동안 큼직한사건이 있을때마다 날카롭고도 중후한 글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또 美國유학을비롯해 수많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세계의가족으로서 한국의 진로를 제시하기도했다.

그의 면모는 1978년에 출판된 에세이집「프라하의 가을」에 집약돼 있다. 이 책은 여러차례의 해외여행에서 느낀 단상「외국인의 애국심」같은것과「살게하자 강물에 銀魚를…」같은 환경에 관한것, 「언제부터 황금만능인가」「白凡가시던날」등 얼핏 다양하다못해 분망한 인상마저 없지않다. 그러나여기에는「인간다운삶」을 외치는 그의 굵직한 절규가 일관해서 흐르고 있다.

그가 와병하기 얼마전에쓴 時論「和而不同의 교훈」에는 인간다운 삶의 방향이 쉽고 간결하게 제시돼있다. 政治被規制者들의 해금이 발표된 1월하순에 쓴 이 글에서그는『…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크게는 국가도 그렇고 인류사회도 그렇다.「和」가필요하고 중요하다. 사람들은 화목할줄 알아야하고 협조할줄 알아야한다. 그러나 雷同을 한다거나 무원칙한 타협을 한다는것은 개인의인격적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될뿐만아니라 그 집단의 발전을위한 밑거름이 될수없다』고 했다. 【梁平기자】

메아리

책속의 책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궁싯거리고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법은없다. 츱츱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치 않다』

이렇게 시작되는 李孝石의 단편「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인의 서정이 淸流처럼 흐른다. 타계한지 41년, 그를 기리는 문학관이 삽질조차 못한다는 한국일보 보도(26일자 7면)를 대하니 안타까움에 사로 잡힌다.

원로문인들이 나섰고, 유족은 전집을 간행하여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란다. 李孝石문학관이 전집을 낳고 그 전집이 문학관을 낳고… 이런 상념에 젖어 본다. 주옥 밖에 달리 비길데 없는 그 문학전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구실을 해주면 오죽 반가울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다.

문학은 인간의 향기다. 저작은 고뇌의 산물이다. 성서의 표현을 빈다면 작품은 「마음의 가난」에서 나온다. 사람의 魂은 고난에 부닥쳤을때 더 강해지고 밝아 진다.

史記를 지은 司馬遷의 생사관은 엄숙하고 서릿발 같다. 「최선의 죽음은 조상을 부끄럽게 안하는 것이다. 차선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宮刑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고도 史記를 저술한 사명감을 밝힌 대목은 차라리 절규로 들린다.

「西伯은 감옥에 갇혀 周易을 썼다. 공자는 陳과 蔡나라 사이에서 곤경을 겪고 春秋를 펴냈다. 屈原은 추방되어 離騷의 시를 노래 했다. 손자는 두 다리를 잘리고 兵法을 서술해냈고 呂不韋는 유배되어 呂氏春秋를 세상에 전했다. 韓非子도 옥속에서 세난(說難)과 고분(孤憤)을 남겼다. 詩經 백편은 성현들이 분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편찬한 것이다」

빼어난 저작엔 언제나 이런 인간의 뜨거운 마음과 혼이 담긴다. 그래서 책의 힘은 끈질기고 놀랍다.

우리말로 펴낸 중국의 고전전집을 소개하는 서적 외판원을 보았다. 한 질에 10만원 가까운 호화본이었다. 이 책을 권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덤」을 엄청나게 풀어 놓는다. 마치 요술상자 처럼 「책속의 책」이 줄줄이 나온다. 3~4질의 다른전집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다.

사달라는 책의 값과 그냥준다는 다른 책값을 따져보니 2~3배가량 많았다. 기발한 외판술의개발이구나 은근히 감탄했다. 그러나 금새 한가지 걱정이 떠올랐다. 「공짜책」이란 인상이 두려웠다. 책은 그냥 얻을수 있다는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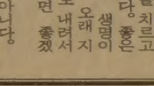
힘들게 써내고 공들여 만든책이 공짜라니 달갑지 않다. 그 가운데엔 현존작가의 대하작품도 끼여 있었다. 저자의 失色한얼굴이 얼핏 떠올라 민망하다.

珍奇의 사전인 기네스 북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짧은 편지의 기록이 나온다. 대문호 빅토르·위고의 서신이다. 「레미제라블」을 탈고, 출판사에 넘기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대문호의 마음엔 그래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출판사정과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여행지에서 출판사에 꼭 한자, 의문부(?)를 적어 보냈다. 책이 잘 팔리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심혈을 기울인 작가의 심려는 이만큼 대단하다.

이러니 책은 제대로 값을 치르고 팔고 사야 그 가치가 보존된다. 좋은 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생명이 끊이지 않는다. 발행기간이 오래 지난 在庫책은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서 파는 전문서점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은 일시적인 유행품이 아니다. 명저는 영원한 베스트 셀러이다. 반세기 가까운 李孝石문학이 여전히 그향기를 짙게, 더해 가고 있음이 이를 실증한다. 책속에서 책이 탄생한다. 많이 읽어줘야 더 좋은 책이 계속 나올수 있다.

무더위가 일찍 왔다. 벌써부터 바캉스 궁리나 한다면 책은 자꾸 무거워지고 멀어지기만 할뿐이다.



劉榮鍾 【編輯委員】

記者의 눈

晩時之嘆

이제사 南山을 더이상 망가뜨리지말자는 自省의 눈이 뜨였다.

南山기슭 13만여평의 땅을 공원지구로 묶겠다는 서울시의 조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인간누에」들의 잠식으로부터 막아보자는 것이다.

30년전에 철이들었더라면하고 생각하니 晩時之歎이다. 우리의 南山은 이미 회복할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처연한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은가.

四圍에서 한번 그山을 바라보자. 어느한곳 할퀴우고 찢기지않은 곳이 없다.

기슭에는 물론이요 산허리와 꼭대기에까지 거대한 콘크리트구조물들이 무례하게들어섰다. 연면적 2~3만평의 고층빌딩들이 길목을 막고섰는가 하면 15층짜리 아파트까지 들어서 山의자태를 가려버렸다.

南山은 서울의 정원이다. 묘하게 대도시의 도심한가운데 솟아있는 이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산은 9백만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유재산이다. 서울을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빼어난 자연공원을보고 천혜의 자원이라고 부러워한다.

南山의 상처는 경제성장으로인한 재개발붐 때문만으로생긴것은 아니다.

1905년 乙巳보호조약으로 우리의 자주권을빼앗은 일본이 南山倭城臺(藝場洞)에 통감부를 지으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후 산기슭 진고개일대에 그들의 거류민촌이 형성되고 산허리에 저들의신궁과 신사까지 들어서 치욕스러운상처를 입고야말았다.

그러나 그때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는 그리크지 않았다.

광복을 되찾고 南山의 상처를 말끔히 정리한뒤 가꾸는걸 잊었다. 우리는 다시 南山을 학대하는행위를 계속해왔다. 고층아파트, 고층호텔을 중턱에 짓게한 그미련함이여…. 너무 늦었다. 그러나 더 이상 훼손당하지않게 된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文昌宰사회부기자】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리스팅

◎주택

(1) West
a) Dufferin × Steeles
새동네에 들어선 Public Park 가까운 2층집(4 Bedrooms) Asking 14만5천불(이헌영)
b) Royal York × Summit Cres.
Side Split(3 Bedrooms)
Asking 15만9천불(유응복)
(2) Central
a) Yonge × Finch
2층 붉은 벽돌집(4 Bedrooms)
이태리인소유, Ceramic Tile로 장식되었음.
Asking 25만9천불(이헌영)
(3) East
a) Don Mills × Lawrence
Bungalow(3 Bedrooms)
Asking 12만7천불(유응복)
b) Don Mills × Lawrence
Bungalow(4 Bedrooms)
학교 가깝고 수영장 있음(16' × 32')
Asking 14만5천불(임윤식)
c) Lawrence × Underhill
교통편리지역(3 Bedrooms) 넓은 뒤뜰 New Carpet.
Asking 15만9천불(이헌영)
d) Scarborough
Bungalow(3 Bedrooms) Asking 9만8천불(임윤식)
e) Don Mills × Finch
Executive 2-story(4 Bedrooms), Double Garage, Professionally finished basement, Large-lot, Gameroom, Central Airconditioner. Asking 23만9천불, D/P 7만불.(황용현)

◎상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a) Grocery Store(Lease 4년 + Option 5년)
주매상 7천5백불, Asking 12만5천불 + Stock(유응복)
b) 주매상 6천5백불, Rent 400,00/month,
Asking 9만5천(유응복)
c) 주매상 5천5백~6천5백불, Rent 680,00/month
Asking 7만3천불(황용현)
d) Grocery Store,
주매상 3천불(Lease 3년 + 5년 option)
Rent 675,00/month, Asking 2만5천 + Stock(임윤식)
e) 주매상 6천불, In Pickering, (Lease 2년 + 5년 option)
Rent 500,00/mo, Asking 6만9천불(임윤식)
f) 주매상 8천불(Lease 2년 + 5년 option)
Rent 1,100/mo, Asking 13만5천(임윤식)
(2) Dry Cleaner
연매상 11만불, Asking 12만불(황용현)
(3) Video Shop
a) 주매상 3천불, Asking 3만 + Stock 5만(황용현)
b) Video Arcade(Plaza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게임기계, Asking 8만5천불(유응복)
(4) Donut와 햄버거 Shop
주매상 6천불 + Video Income 4천불(월)보장.
Asking 21만5천불, D/P 5만불(황용현)
(5)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
주매상 8천불, Asking 27만9천불(황용현)

◎투자용건물

(1) 코너스토어 + 건물(3 Bedrooms)
주매상 $8천, Asking $35만(임윤식)
(2) 큰 길가의 가게 + 건물,
Asking 16만5천불 (임윤식)
(3) Dufferin × Eglinton
가게(96 SQ FT) 달린 건물(2층에 2 Bedrooms)
Asking 14만5천불(임윤식)
(4) 주매상 8천불, 1 Bedroom Apt 4개 달린
Corner Downtown 건물, Asking 41만불(황용현)
(5) Eaton Center에서 가까운 Commercial Corner Bldg.
Asking 27만9천불, D/P 7만불(황용현)
(6) Variety Store와 Grocery가 달린 건물,
주매상 4천5백불, Appraisal가격으로 D/P 3만5천불 (유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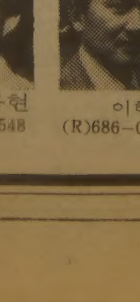
주택상담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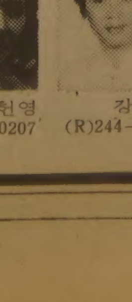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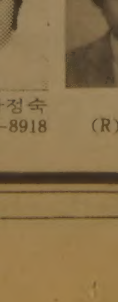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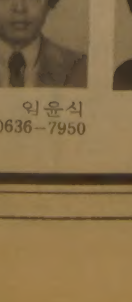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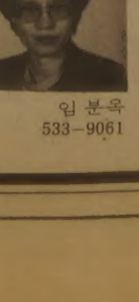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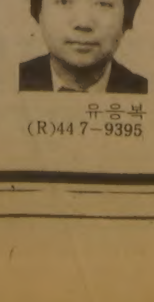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응복 (R)447-9395

올 메이저 打擊1위 打率 5할을 목표로

테니스 치듯 安打를 친다

로드·카루

「테니스라켓으로 야구를 하는 선수」。83년 메이저리그의 타격1위를 마크하고 있는 로드·카루(37)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번은 우익수 앞에 떨어뜨리고 다음에는 왼쪽펜스쪽으로 띄우고…자유자재이다. 포수출신으로 현재 클리블랜드·인디언스의 선수스카웃담당자인 버디·테베츠는 『거의 마음먹은대로 볼을 날려보내는 카루의 타격은 마치 테니스를 치는것같이 정확하다』고 격찬한다. 캘리포니아·앤젤스의 1루수. 그는 지난 30년간 가장 뛰어난타자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海外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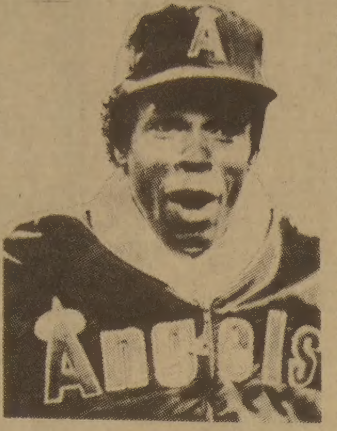
올시즌 타율 5할을 목표로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는 1백23타수 54안타로 4할3푼9리. 타석에 들어선 왼손잡이 카루의 포즈는 변화무쌍하다.

스탠스는 상대투수와 상황에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그중 한가지는 배터박스의 중간에서 몸을 낮게 웅크리고 배트를 움커쥐는것으로 마치 의자에 걸터앉아 양의 젖을 짜는 모습이다. 두번째 자세는 공원의동상처럼 꼿꼿이 선 것이고 세번째는 몸을 뒤로 기울이고 배트를 평평하게들어 거의 허리와 평행이 되도록 한 것이다.

카루는 절대 투수의 컨트롤에 말려드는 적이 없다. 언제나 투수들을 연구하고 볼에 집중하고 교만에 가까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

37세의 고령에도 불구、지난 15일에 50안타(1백13타수)를 돌파했다. 시즌초에 카루이상의 쾌조를보인선수는 이제까지 지미·폭스(1932년)、스탠·뮤지얼(1958년) 뿐이다.



◇타율 5할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있는 로드·카루.

상황따라 변화무쌍한 打球폼

"거의 마음먹은대로 볼을날려"

으로 돌다 1백7타수에 50안타(4할6푼7리)를 올렸다.

카루의야심이라면 월드·시리즈에 출전하는것이다. 지금까지 4개팀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월드·시리즈의 일보직전인 리그결승경기서 주저앉고 말았다. 4번째소속팀인 앤젤스도 지난시즌 리그결승에서 브루어즈에 1、2차전을 먼저 빼고도 나머지 3게임을내리져 월드시리즈진출이 막히는 불운을 당했다. 마지막 5차전서 3-4로뒤진 앤젤스는 9회2死후 주자 2루의 찬스를 맞았다. 로드·카루가 타석에 들어섰다. 밀워키 카운티·스타디움의 5만5천관중은 숨을죽였고 수백만명의 팬들이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루는강속구의신인·투수 피터·래드와맞섰다.

마릴린은 다른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막바지 게임을 쫓아다니며 가슴죄느라 탈진된 상태였다.

래드는 온힘을다해 강한 볼을 던질것이 분명했다. 카루는 좌측라인쪽으로 파울볼을 한개때리고는 볼과 스트라이크 하나씩얻었다. 그다음 래드의투구는 허리높이에 몸바깥쪽으로 약간 빠지는 빠른 볼이었다. 카루는 노리던 대로 날카롭게 쳐냈다. 그러나 타구는 한번 튀긴후 유격수의 글러브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호텔로 돌아온 앤젤스의 선수들과 아내들은 울음을 참지못했다. 마치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

메이저리그에서 17번째 시즌을 맞고있는 카루는 아직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건재하다. 생애통산타율은 0.331. 현역선수론는 조지·브레트가 0.316으로 카루에이어 2위. 카루는 지금까지 7개의 타격타이틀을획득했다. 69년에 첫타이틀을딴후 70년대들어 6개를 보탰는데 7개이상의 타이틀을 가진 선수는 모두 4명뿐이다. 로저스·혼스비、스탠·뮤지얼이 7개씩이고 호너스·와그너8、타이·콥이 12개이다.

카루는 일부 스포츠 기자와 팬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들이 꼬집는것은 카루가 중요한 고비에서 안타를 치지못한다一즉 타점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스의 스카우트 테베츠는『어리석은 소리다. 그것은 카루가 거의1번타자로 나왔기때문이다. 그의 포지션에서는 우선 출루하는게 가장큰역할」이라며 반박한다.

카루도 77년 미네소타에서 3、4번을치던 시절에는타점이 1백점에 이르렀다. 1번타자로 나선 지난해에는 44점에 그쳤다.

카루는 타율 0.388을기록했던 77년에비해 올해는 더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도 좋아지고있다.

일례로 지난해는 오른손의뼈 2개가 부러진 상태로운동을했다. 타율0.319를유지했고 82년 메이저리그 최장기록인 25게임연속안타를 때렸다. 또한 82년까지 14년간 연속3할이상의 타율을 유지했는데 14년이상의 기록을 가진 선수는 지금까지 모두 5명이다.

81년 선수들의 파업직전、앤젤스가 부진한 성적으로 팬들의 야유에 시달리고 있을때 카루는『팬들이 지나치게 변덕스러운것 같단』고 말했다。봉변을 당하기도 했다。이발언이 지방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카루는 비난의 주요표적이 되었다. 관중들의 반응은 너무 거칠어 경기후에는 차를탈때까지 경찰관의 호위를 받아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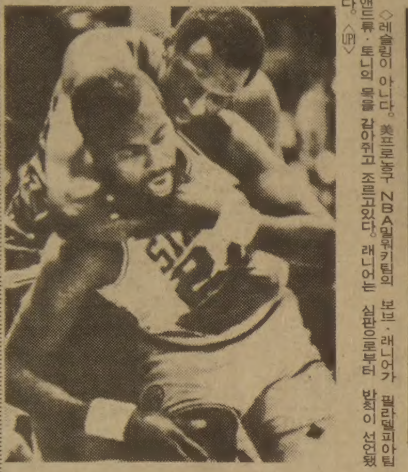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앤젤스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의 수위로 올라서고 카루도메이저리그 수위타자로 등장하자 팬들의영광은 되돌아왔다. 팬들이변덕스럽다는 카루의말이실증된셈이다.

5년전 카루는 1백만달러에 가까운 연봉을 받기로하고 앤젤스로 왔다. 그러나 아직도 돈에 관한한 매우 세심함을 보이고있다. 파나마에서의가난했던 어린시절을 잊지못하기 때문이다. 그는국민학교시절 단하나뿐인 신발밑창이 떨어져 펄럭이는 소리때문에 복도를 걸어다니지 못했던 적이있다. 【兪爽根기자】

보브·호프、골프「명예전당」에

◇美國의 대표적 코미디언 보브·호프가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골프「명예전당」에 올랐다. 호프는 80회생일을 11일앞두고 명예를 차지했다. 명예전당에 헌액된후 기뻐하는 모습.〈AP〉

레슬링이 아닌데… 농구珍景



◇레슬링이 아니다. 美프로농구 NBA밀워키팀의 보브·래니어가 필라델피아팀 앤드류·토니의 목을 감아쥐고 조르고있다. 래니어는 심판으로부터 반칙이 선언됐다.〈UPI〉

날아다니는 핀란드人

歡呼뒤로 사라진 스포츠스타들 <16>

파보·누르미

파보·요하네스·누르미(Paavo Nurmi)에게는 「날아다니는 핀란드人」이란 별명이 붙어있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거리주자였다. 누르미와 제시·오엔즈만큼 상징적인 인물도 없다.

누르미를 아끼는 사람들은 누르미를 곧 트랙의 대명사로 칭송한다.

스포츠·스타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던 1920년대 스포츠황금시대에 파보·누르미는 한시도 눈을 뗄수없는 주목거리였다. 1920년、24년、28년 3차례 올림픽에서 6개의개인종목 金메달과 3개의단체종목 金메달을획득했다. 육상기록에서 일찌기 찾아볼수없었던 대전과였다.

1924년 파리·올림픽서는 1천5백m와 5천m레이스가 55분 간격을두고 벌어졌다. 1천5백m를3분53초6으로 우승한후곧 숨을 돌려 5천m에출전、14분31초2로 연달아 우승했다.

그는 레이스전에 자신이 이길수있으리라고 확신했다. 2주일전 그는 두 레이스를 55분간격으로 달려 모두 세계신기록을 수립했기때문이다.

1921년부터 1931년까지 1천5백m서부터 2만m까지 옥외경주16종목에 고루 출전、23차례 세계기록을 수립했다. 6마일기록은 18년간、10마일기록은 17년간 지켜졌다.

1925년 4개월간 미국을원정、68개실내경주에 출전、66개레이스에서 우승했다. 처음 12일동안 5개레이스서 7차례나 실내육상기록을 세웠다.

당시 누르미는 미국프로모터들에게 많은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마라톤종목출전을 꾀했으나 국제육상연맹은 그가 1929년 독일원정때 과다하게 많은 경비를 받았다고 직업선수로 판정、올림픽출전자격을 잃었다.

◇누르미는 핀란드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 1924년 파리 올림픽 5천m레이스에서 14분31초2로 우승할때의 모습.

눈물을 머금은 누르미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은 3년이나 기다려 내게 이같은 가혹한 제재를 취하느냐』고 항변했다.

누르미는 9살때부터 달리기를시작했다. 소년시절 우편열차와경주하곤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엄격한 규율하에 말없이 달리기에만 몰두했다.

그는 처음 장거리를 과학적인 레이스로개발한 사람이기도했다. 누르미이전의 장거리주자들은 트랙을 쉬엄쉬엄 달리다가 마지막 한두바퀴에서 질주、승부를 내곤했다. 누르미는 스톱워치를 손에들고 스피드를 체크하며 마지막 래프에 들어갈때까지 놓지 않았다.

3차례 올림픽陸上서 金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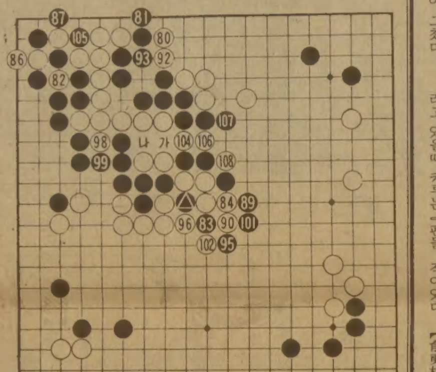
55분 간격두고 2종목連勝도

그는 항상 그자신을위해서 달리는것이지 조국을위해 달리는것은 아니라고말했다.

누르미는 교향시「핀란디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핀란드를 빛낸 시벨리우스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1952년 올림픽이 헬싱키에서 열렸다. 성화최종주자의 영예는 누가 안게될까. 개막식에 참석한 7만3천관중들은 흥분속에 성화를 기다리고있었다. 잠시후 그들은 성화봉을 높이 치켜든 55세의 노인을 볼수있었다. 물길처럼 유유히 뻗어가는 특이한 주법을 사람들은 잊지않았다. 성화가 트랙을 도는 동안 함성이 일어났다. 전광판에는 커다란 글씨가 아로새겨졌다. 『누르미(NURMI)』 【方錫岣기자】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5譜 80~108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2勝2敗〉

黑(6段) 張 秀 英〈4勝0敗〉

姜5단은 제10期부터 5년간이나 名人戰고정멤버로 부동의자리를 지키는 중이며 張6단은 제12期부터 3번째。그동안 이들은 두번대결하여 모두 張6단이 승리했다。그러나 이 바둑에서는 초반부터 姜5단이 맹공을 퍼붓고있다.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白80의 패싸움을 듣지말고 黑81로 86자리에 따내어 패를 해소하지 않은것이 거듭되는 실책。白82에 대해 黑은 패감이 없다.

결국 黑83、89、95등의 손해패감을 쓰게되었는데 아마도 이무렵 張6단은 뼈를깎는 아픔을 참았을 것이다。원래 축이 안되는 곳을 몰경우는 한수에 10집손해란 말이있다。이런계산이라면 여기서는 3수에 도합30집 손해를 본셈.

中原이「와르르」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패감이 부족하다。黑103으로 패를 따냈으나 白104에 대하여 하는수없이 黑105。결국 白106、108로서 중앙이 와르르 무너졌다。공연한 오기로 黑81에 저항한 일이 새삼크게 뉘우쳐지는 것이다.

수순중 黑105는 106에받고 다음패감으로 黑「가」에몰아 白이패를 해소할때 黑「나」로白2점을 잡을수는 있으나 이미 중앙에서 ▲표와 83이 잡혀버린 상태로는 역시 불만이다。여하간본보는 白필승의국면이다。85、88、91、94、97、100、103…패。【一凡】

표주박

警察官이 同居애인 結婚에 심술 마을 機關長들에 편지… 破婚케

○…경찰관이 동거하던 애인이 몰래 결혼하자 동거사실을신랑마을의각급기관장에게 편지로 알려 결혼한지 15일만에 파혼시킨후 자신도 공직을 떠난 사실이 밝혀져 화제。

지난14일하오 경북尙州郡咸昌읍내 각급기관장 7명앞으로『이럴수가 있읍니까』『1년이 넘도록 동거하던 여자가 말한마디없이 다른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말단공무원은 결혼도할수없단 말입니까』라는 호소의 편지가날아들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大邱시내 동대명파출소에 근무하던 이모순경(26)。이순경은 지난달26일까지 대구에서 함께 살아오던 김모양(26)이 지난4일『서울에 취직해 가기때문에 자주 만날수 없게됐다』고 전화한후 소식이 끊어지자 이를수소문、金양이 지난달30일 경북店村邑 N예식장에서 尙州郡咸昌읍의 黃모씨(28)와 결혼、지난4일 신혼여행을 갔다오다 李순경에게 전화를 건것을 알아내고 이같은 호소편지를 띄웠다는것.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신랑黃씨집에서는 金양을 돌려보내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李순경도 사회에 물의를빚게해 죄송하다며 공직을물러났다. 【店村=聯】

다리여섯인 송아지 불편없이 마구뛰어

○…다리가 6개달린 기형송아지가 태어나 화제。

지난25일하오 경기楊平郡淸雲面桃源1里 金현종씨(49)집에서 키우는 3년생한우가 앞다리위에 35㎝와 15㎝가량되는 다리2개가 더달린 기형송아지를 낳았다.

몸무게 50㎏의 이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는듯 어미젖을 빨고 마구뛰어다녀 구경거리가 되고있다. 【楊平=聯】

張吉山 <1751>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1)

『장창은 뭘, 작대기 하나만 있어두 된다. 사실 인조반정때에두 실제 처음에 동원된 군사는 육백명에서 천명이 못되었읍니다. 도감군(都監軍)이 나설것이나 그전에 점령해야 합니다. 훈련도감을장악하면 한양은 우리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뒤에라면 한양과 근기지방에서 의병 삼사천을 급히 징번하여 쓸수있으니 지방군은 그리 염려할 바가 못됩니다』

황회가 말하였다.

『지방에서는 천민들이들고일어나 감영을 점령할것이오, 우리는 주상(主上)을 사로잡아 그에게 효유토록하고 나중에 진인(眞人)을 세워 입국하면 됩니다』

모두들 그에 이르러 두리번거리다가 정대성이 우물쭈물 물었다.

『우리는 모두 상사람들이라 양반의 일을 모르는데、과연…우리 가운데서 누가 임금이…되는 것입니까?』

여환이 미소 지으며 답하였다.

『상사람이 따로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만국의 창업주들은 모두가 평지에서 몸을 일으켜 돌줄한 사람들이지요. 여기 세신 이들이 모두 장군대신들이지요. 진인은 강원도에서 저희 사승(師僧)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궁궐을 깨치고 들어가 주상을 사로잡는 일은 내게 맡기시우』

정호명이 말하자 시동이가 말하였다.

『최영 장군님 넋을 받은 분이니、성님이 마땅히 선봉이 돼야허우』

원향과 계화는 얼굴만 비쳤다가 나가서 칠석제 지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장작을 잘게 뻐개어 부엌 봉당에 쌓아 주던 박수 김승운이가 들어왔다.

『종사(宗師)、나는 뭐늘 칠성암이나 지키구 사는 거요? 나두 사선골서 원한이 등골에 박힌 사람이라우. 이번에 입경할제 마누라가 안간다 하니、내라두 가야겠소』

『허허、김박수는 암자에 남았다가 뒤처진 이들께 연락도 하고 행방도 알려주고 해얄텐데…』

『뭐 계손이는 장수가 되고、나는 암자지기나 되란 말요?』

하는데 계화가 얼른 남편을 끌어냈다.

『내가 안간는데 어딜 따라 나선다구 보채시우. 이럴려구 해서에서 스님 따라 나섰수?』

『나두 용화세상 좀 봐야지』

모두들 기분이 들떠 있었고、애초부터 혈속도 재산도 변변히 없었고 잃을 것도 별반 없어서 모역이란 것이 그리 끔찍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들이었다. 모두들 봄에 화전놀이 갈 채비라도 하는것같았고 정만일이나 정호명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운장이나 한신 같은 호걸들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황회 김시동 정원태 같은 이들만은 비교적 냉정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갑자년 검계 살주계 난리 때에 살전을 겪었고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지척에서 보았던 터였다.

칠월 열 하룻날、영평읍내에 있는 이철신네 사랑에는 황회와 정원태가 와 있었고 원태가 부른 사녕 장포의 주막 주인 이시흥과 안협의 이정명이 와 있었다.

길

◇韓景職◇

그리스도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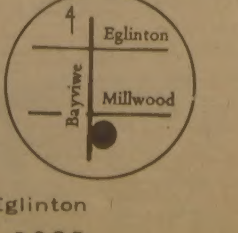
영국교회의 유명한 버틀러감독이 병이 중해서 세상을 떠날때의일이다.

그는 옆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내가 일생토록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갖은 애를 써왔지만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 고말했다. 『아 감독、왜 그런 생각을하십니까?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죄를 다 속량해주신 구주가 아닙니까?』 고 대답하자 감독이 『그렇지. 예수님께서 참구주가 되시지. 그러나 꼭 내 구주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하고 의심스러워 반문했다. 그때친구목사가 다시 하는말이 『내게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6:37)한 말씀을 잊으셨읍니까? 하자 감독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과연 그렇다. 내가 성경을 수천번보았지만 그 귀절의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南山주변땅 建築못한다

서울市 미개발 45만m² 公園지역 묶어

景觀훼손 더이상없게 호텔증축등 금지
외국인아파트등도 포함 補償 철거키로

시들어가던 南山의 경관을 더이상 훼손시키지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6일 南山기슭의 미개발지 45만㎡(13만6천3백63평)를 공원지역으로 묶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공원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奬忠洞·漢南洞·梨泰院洞·普光洞등 기존공원지역과 인접한 풍치지구로 新羅、타워、하이야트호텔등 3개 대형호텔과 사파리클럽(奬忠洞) 자유센터(〃) 普光수원지(普光洞) 외국인주택단지(漢南洞·梨泰院洞)등 주요 건물들이 포함돼 있다.

이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구상 풍치지구로 지정돼있어 건축행위가 제한적으로 가능、최근 일부호텔측이 올림픽등 외국관광객러시를 노려 호텔증축계획을 추진하고있어 법적으로 건축을금지하기위해 공원지구로 묶기로 한것이다.

건축법및 서울시 건축조례상으로는 건폐율 30%이내 높이 3층이하 규모의 건물은 지을수 있게돼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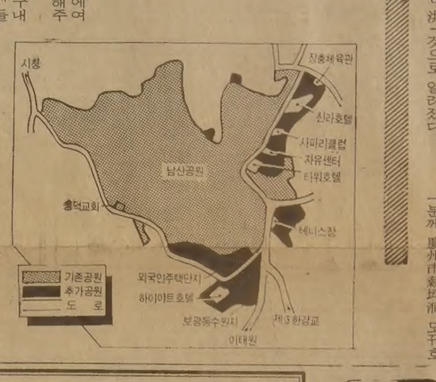
이 지역에는 지난 57년부터 75년 사이에 매머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南山의 빼어난 임상을 크게 해친데다 경관을 차단、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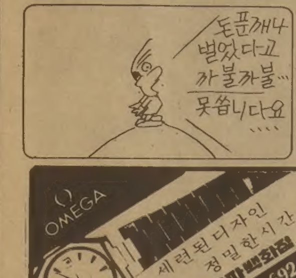
이번 조치로써 南山공원의 면적은 2백50만㎡(75만7천5백75평)에서 18.75%가 추가돼 총2백95만㎡(89만3천9백39평)로 늘어나게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서 新羅호텔등 3개호텔과 자유센터、사파리클럽등은 건물이들어선 땅과 주차장·정원등 기존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제외하고 잔여부지만을 공원지구로 지정하며외국인주택단지와 普光수원지·테니스장등은 모든부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호텔등의 건물부지를 제외한것은 공원지구로 묶으면 보수등시설물관리가 불가능해지기때문、그러나 15층짜리 고층 아파트2동을 포함、모두 67동에 이르는 외국인주택단지와 普光수원지·테니스장등은 건물부지까지 모두 공원지역으로 묶을계획인데、이는 앞으로 이건물들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시재정에여유가 있을때 보상을 해주고 철거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기존공원지구내(南山순환도로 위쪽)에 들어서있는 숭덕교회와 아파트1동및 단독주택들은 앞으로 계획을세워 철거하고 그부지에는 나무를심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복구할방침이다.





등기·속달料등 3백30원으로
내달 우편요금引上

체신부는 오는 6월1일을기해 오르는 우편요금의 종류별 인상내역을 26일발표했다.

발표에의하면▲보통편지가 60원에서 70원▲엽서는 30원에서 40원▲4종우편물(견본·표본)은 15원에서 30원▲씨앗과 잡종은 10원에서30원으로각각오른다. 이와함께 소포도 2㎏까지 2백원이던것이 5백원으로、등기·속달·내용증명·특별송달등 수수료도 2백원에서 3백30원으로 크게오른다. 한편 3종우편물(신문)의 배달요금은 오르지않는다.

木浦 2종醫保料 체납자
내달부터 강제징수

【木浦】전남 木浦市의료보험조합은 26일 오는6월1일부터 제2종 의료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사람에 대해 강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2종 의료보험 실시이후 지난4월말까지 보험료를 1회분도 내지않은 가구등 고질적으로 체납해온 사람은 5백46가구에 2천8백50만원에 달하고 있다. 동조합이 이같이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하게된것은 이들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내지않아 지정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등 제2종 의료보험 정착에 차질을 빚게됐기때문이다.【聯】

銃·탄알종류못밝혀
숨진 雪嶽山반달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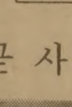
雪嶽山 반달곰의 총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6일 총상부위가너무 부패해 총과 탄알의 종류를 밝혀내지 못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그러나 총상부위에서 발견된구더기의 크기가 1~1.2㎝인것을 밝혀내고 이로미뤄 반달곰이 숨지기 2주전에 총상을 입었을것으로 추정했다.【聯】

「다음 차례」

반달곰 慘死본 수의사 金成元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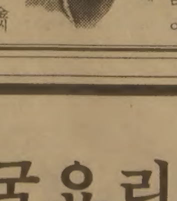
"自然의 죽음은 곧 사람의 최후인데…"



설악산의 熊女는 꿍꿍이 속은 따로 있으면서 걸핏하면 자연보호를 부르짖는 인간을 원망하며 죽어갔다. 총탄에 맞아 구더기가 들끓은 상처는 2주일간 겪었던 그녀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말해준다. 설악산에서 곰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지로 달려간 창경원 수의사 金成元씨(41·사진)는 곰의 죽음에서 인간의 非情을 보았다. 자연보호를 외치면서도 한쪽에서 총을 쏘고, 또 한쪽에선 부상당한 곰을 치료하겠다는 인간의 위선과 모순이 곰의 죽음위에 투영됐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곰은 이미 죽어있었다. 야생동물중에서도 지구력이 가장 강한 곰, 그 곰의 허무한 최후를 가까이서 대했을때 자신이 연락을 받고 현지로 달려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수의사로서 치료한번 못하고 부검만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25일 서울로 향하는 차속에서 그는 또한번 씁쓸함을 맛보아야 했다. 곰을 죽인데 대한 어떤 반성의 소리대신 웅담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그를 괴롭혔다. 1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2명이나 나섰다는등 갖가지이야기가 들려왔다.



창경원에서 13년동안 동물속에서 살아온 그로서는 이같은 아픔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는 원래 야생동물과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67년 전방소대장으로 근무할때 사슴1마리가 휴전선을 넘어 귀순해왔다. 「한국사슴」이라 이름짓고 창경원에 기증했다. 金씨가 제대후창경원에 취직함으로써 다시만난 이사슴은 金씨의손에서 지난79년 천수를 다하고 숨졌다.

金씨는 요즘 천연기념물의 생태와 모습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연보호운동을 활착화시키자는 큰뜻이 있다.

『야생동물이 조용히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들이 죽어가고난뒤 누구의 차례가 된는줄 압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군요』

【朴榮基기자】

國際化시대… 서울의 새 風俗圖

「외국인 流浪客」발길 잦아

학생·無錢여행가·求職者들 몰려들어
會話교습·막노동·호스티스로 생활
값싼 단골 旅館도 생겨 盛業

◇오징어에 막걸리마시며 한옥의 온돌방 여관에서 한국을 피부로 느끼며 지내는 외국인유랑객들。연탄불에 오징어를 구워 소주와 막걸리로 여수(旅愁)를 달래고있다。

서울을찾는 외국인 유랑객의수가 점차 늘고있다。직업을 구하러 온경우、무전여행길에 들른 사람등 섭분도 갖가지。비지네스로 金浦에와닿고 돈을풍풍 쓰는 관광객들과는 전혀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이다。

뉴욕·파리·東京에서는 흔히보는 이같은 유랑객이 보이기 시작한것은 서울이 이들을 수용할정도로 성숙해있고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새로운풍속도가 될만한 현상이다。

서울에 외국인여자가 호스티스로 일하는 살롱이생기고 梨泰院등지에는 미국인이아닌 유랑외국인을 자주 볼수있으며 신문광고로 영어교사를 자원하는 아르바이트 행위도 늘고있다。

서울에는 유랑외국인들만 모여 지내는 재래식한옥의 단골여관까지생겼다。

유랑객단골여관은 서울 鍾路區內需洞187 대지여관(주인 金範纖·44)과 이웃 唐珠洞26 대원여관등 두곳。

낡은 한옥에 창호지문이 달린 방이 각각 15개와 10개가 있는이 여관들은 모두 연탄불로 난방을하며 모든 생활도구가 재래식이다。다만 외국여행객들이 찾기시작하자 앞마당에 낡은소파와 냉장고、세탁기만을 준비해놓을뿐이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단골로 찾는것은 방1개에하루 4천원정도로 값이 싸며 합숙이 가능하고 교통이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일류호텔보다는 한국재래의 물정과 풍물을 손쉽게 접할수있는 잇점도 있다。

이들여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든것은 6년전부터。우연한 기회에 무전여행한 미국인대학생을 대지여관에서 투숙시킨것이 인연이됐다。

그학생은 한달간을 묵다가 돌아갔는데 귀국 도중 세계곳곳의 여행객들에게 대지여관을 선전、이때부터 젊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그후부터 대원여관도 소개되어 이들 두여관은 최근 들어서는 아예 한국인들은 받지않고 외국인전용여관으로 탈바꿈했다。

대지여관 안주인 金씨에 의하면 이곳을찾는 유랑객들은 숙박비가떨어지면 영어회화학원이나 대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돈으로해결하는등 닥치는대로 일하며 서울생활을 한다는것。

두여관 모두 목욕탕도없는 오래된 연탄불인데 이들이 찾아들자 할수 없이 샤워장을 설치했으며 세탁기도 수도가에 내놓았다。

이들여관은 또 숙박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않는 대신 이들이 라면이나 국수를 조리해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예 연탄불을마당에 항상 피워놓고있다。

25일하오 대지여관。마당과 처마밑에놓인 쇼파에 5~6명의 여행객들이 모여앉아 연탄불에구운 오징어 한마리를 안주삼아 막걸리와 소주로 여수(旅愁)를 달래고있었다。

이들여관에 투숙한 외국인들은 서로의 국적은 물리지만 여관에 들어오는즉시 친구가 된다。그래서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번갈아가며 막걸리나 소주파티를 주최하는데 평균 이틀에 한번꼴。가끔 춤도 나오는 여흥이 벌어진다。

한국에 3번째로 온 영국인 노먼·스컬리씨(45)부부는 대지여관의 단골손님중의 한팀。

스컬리씨는 21년전부터 세계각국을 돌며 여행을 해오고 있는데 부인 앤여사(32)와는 3년전 스위스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고있다。

스컬리씨는 여행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부인은 호스티스로、자신은 영화엑스트라、영어회화선생、막노동등 닥치는대로 일을 해 돈을 번다는것。

그는 25일 여관으로 다시 오면서 金浦공항에서 일본을거쳐 한국으로 여행온 이란인 아마드·하세미씨(27)를만나 이 여관으로 데리고왔다。

3개월전부터 이곳에 투숙해있는 크리스토퍼·스트롱군(24)은 캘리포니아大 법률학과 대학원생。

6개월계획으로 세계여행을 떠난 것이 재미가있어 21개월째라고말했다。태국에서 다른 여행자로부터 이여관을 소개받아 왔다는 스트롱군은『한국이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서구의 영향을 덜받은듯 독특한 문화』라며 특히 남녀간의행동등 문화적 습관에 매혹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한시간에 6천원~1만5천원씩받고영어회화를 가르치면서 용돈을 조달하고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슈아·코헨양(22)과 아나트·랴주양(23)은 고교를 졸업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4개월전 한국에와、이곳에는 2주일째 머물고있다。

두아가씨는『한국인남자들이 정력제라고해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문제를 놓고 대지여관의투숙객들과 국제세미나를벌였다고 말한다。

한편 여관주인 金씨는『자신이 영어회화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이들과 오래 사귀다보니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소통하고있다』면서『이들이 귀국해 가끔 고맙다는 편지나 카드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한국에대한 좋은인상을 간직하는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鄭在龍기자】

氣象이변으로 강원 洪川 산중턱에

警察헬機 추락 둘死亡

경찰헬기가 악천후로 추락、조종사와 정비사등 2명이 순직했다。

26일 하오1시30분께 강원도경찰국 소속 헬기(조종사 裵永河경위·33)가 강원 洪川郡 化村面 長坪1里 야산중턱에 추락、조종사 裵경위와 정비사 沈東澤경장(46)이 순직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이날 상오10시 春川을 떠나 墨湖상공에서 해양오염 감시업무를 마치고 春川으로되돌아 오던 길이었다。

헬기가 추락한지점은 洪川읍에서 30㎞가량 떨어진 산간지대로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당시 이일대는 구름이 짙게끼고 소나기가 오는등 기상상태가 불량해악천후로인한 고장으로 추락한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헬기는 국산 5인승 휴즈 500D형으로지난해 5월구입、강원도에서 작전업무등을 수행해왔다。

警察오토바이 軍짚차와충돌
순경등 2명死傷

【慶州】26일 새벽2시10분께 慶州市新坪洞 도큐호텔 앞길에서 1백20㏄오토바이를 타고 순찰근무중이던 慶州경찰서 德洞파출소 孫七福순경(27)이 해병모부대소속 옥현석상병(22)이 운전하던 짚차와 정면충돌、孫순경은 숨지고 오토바이 뒤에타고있던 전경 정백원일경(22)은 중상을 입었다。【聯】

바닷물 3m나 昇降현상
東海岸일대 주민들 待避소동

【東海·束草】강원도 동해안과 鬱陵島 일원 해안지대에 26일 하오 1시30분부터 바다의 수면이 3m쯤 오르고 낮아지는 해면 승강현상과 간만의 차이가 최고 6m나되는 조수현상이 발생、동해안 2천여척의 어선과 해안주민들이 대피소동을 벌이고 있다。

동해안에는 이날 하오1시30분부터 바다가 동요하기 시작、하오 2시께부터 7~15분간격으로 이같은 현상이 일어 5차례나 계속됐고 하오 3시30분 현재 계속되고 있다。

高城郡 巨津항의경우 하오2시께부터 평소 부두에서 1.5m정도 밀물던 해면이 불어오르면서 위판장 높이까지 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이 7~15분 간격으로계속됐고 東草항에서는 같은 시간부터 수면이 평소보다 50㎝이상 높아졌다가 50㎝이상 낮아져 해면의 승강폭이 1~1.2m의 차이를 내는 현상이 10~15분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墨湖항은 하오2시30분께부터 평소해면보다 바다물이 1.5m나 불어나물양장이 넘쳐흘렀고 東海市 發翰동에서 墨湖항간 1㎞의 도로가 침수됐다。5분후 물이빠졌는데 물이빠질때는 평소항내수면보다 1m이상낮게내려간등3m의 이상해면승강현상을보였다。이같은 현상은 일본북해도 서방 60마일 지점북위40도50분、동경1백39도에서 26일낮 2시께 강도 7.7의 지진이 발생했기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26일하오 3시30분을기해 동해안 일대에 뒤늦게 해일주의보를 내렸다。【聯】

독립유공자 金永佑옹

독립유공자 金永佑옹이 25일상오2시 전남 光州市 東區 芝山洞708의10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86세。

발인은 27일상오11시。장지는 전남務安郡務安邑 校村里선영。연락처 光州② 9246。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흥신의「人間市場」
●한국 事態·人脈을 캔다

한국요리의 전통을 이어
한국적인 멋을 겸비한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
자신있는 요리솜씨!

*최고의 진미 *저렴한 음식값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영업 · 오전10시~새벽 1 시

◇입단 첫해에 클린업 트리오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第一銀 5번崔光默이 6회말 역전 투런홈런을 날리고 홈인, 동료의 환영을받고있다。

10國서 11팀출전
대통령盃축구 4일開幕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제13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경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6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서울 水原 大邱 釜山 全州에서 펼쳐질 이번 대회는 예선 A조에 한국대표 이탈리아(제노아) 미국(대표팀) 태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B조에 한국프로 뉴질랜드 네덜란드 가나 수단등 10개국 11개팀이 참가한다. 인도는 당초 예정을 바꾸어 지난 24일 불참을 통보해왔다.

경기방식은 2개조 예선리그를거쳐 각조 상위 2개팀이 결선에 진출, 패권을 가리는데 준결승에서 무승부일경우 30분 1회연장후 승부킥, 결승전에선 1회연장후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때는 공동우승으로 한다.

한국대표팀은 4일 하오 3시30분 이탈리아와 개막전을 갖는다.

◇확정된 경기일정표

월 일	대진	장소
6·4	한국—이탈리아 태국—나이지리아 미국—인도네시아	서울
5	네덜란드—가나 한국프로—뉴질랜드	서울
6	미국—나이지리아 이탈리아—인도네시아 한국대표—태국	수원
7	뉴질랜드—가나 네덜란드—수단	서울
8	태국—인도네시아 이탈리아—미국 한국대표—나이지리아	대구
9	뉴질랜드—수단 한국프로—가나	서울
10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이탈리아—태국 한국대표—미국	부산
11	뉴질랜드—네덜란드 한국프로—수단	부산
12	미국—태국 이탈리아—나이지리아 한국대표—인도네시아	전주
13	가나—수단 한국프로—네덜란드	전주
15	A1—B2 B1—A2	서울
17	3·4위 전 결 승	서울

대통령盃 出戰놓고 할렐루야-油公격돌

프로축구의 라이벌 할렐루야와 油公은 제13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출전권을 놓고 29일 하오5시30분서울운동장서 한판을 벌인다.

두팀은 지금까지 슈퍼리그에서 2번,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선발전에서 1차례등 3번싸웠으나 모두 비겼다. 이번4차전서도 비길 경우 승부킥으로 출전을 결정할 방침이다.

韓國여자 2위 中正청소년 핸드볼

【臺中(臺灣) AP=聯】 한국여자팀은 25일 臺中에서 폐막된 中正컵청소년핸드볼대회여자부경기에서 臺灣의 충·광팀을 31—13(13—8, 18—5)으로 물리치고 2위를 차지했다. 여자팀 우승은 西獨팀이 차지했다.

趙浩成 "덩치값(95kg)했다"
실업야구 9회말 굿바이홈런…第一銀, 農協잡아

역시 4번타자。실업야구에서 가장무거운 95kg(1m80)의 거구 趙浩成이 제값을 톡톡히 했다。

第一銀行 4번타자인 趙浩成은 1회 실업야구선수권대회 農協과의 금융단에서리그 2차전서 9회말 역전굿바이 홈런을비롯, 3루타 2루타를 고루1개씩 때리며 3안타 3타점으로 그라운드를 휘저었다。李元一, 趙浩成, 崔光默으로 이어지는 第一銀의 클린업트리오는 역시 실업 정상급이었다。

3번 李元一은 이날 4타수 3안타 3득점을기록했으며 5번 崔光默은 2—3으로뒤지고있던 6회말 역전 투런홈런으로 팀의활기를 북돋웠다。

第一銀은 李—趙—崔트리오의 분투에힘입어 6—5로 역전승을 거뒀다。1회초 農協 李三烈의 홈런등으로 2점을빼앗긴 第一銀은 1회말반격서 2死후 3번 李元一의 중전안타와 4번趙浩成의 우월3루타로 1점을 만회했으며 6회말에는 李元一의 좌전안타에이어 5번 崔光默이홈런을터뜨려 2점을보탰다。7회말 5—4로 한점을 뒤지고있던 第一銀은 또다시 李元一부터 추격의실마리를 풀었다。2死후타석에 들어온 李元一이 農協투수 宋浩成으로부터 좌월 2루타를 뺏고나가자 趙浩成이 우월2루타로 뒤를밀어 동점을 만들었다。

◇제5일전적 (26일·서울운동장)

농협 (2패) 201 000 200—5
제일은 (1승1패) 101 002 101—6

▲홈런=李三烈(1회), 金男洙(3회·이상농협), 崔光默(6회·2점), 趙浩成(9회·이상제일은)

함부르크 우승 유럽컵 축구

【아테네25日AFP聯=聯】 西獨의 SV함부르크팀은 이곳서 벌어진 유럽컵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팀을 1—0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함부르크의 펠릭스·마가트는 전반8분 결승골을 올렸다。

서독팀이 유럽컵을 차지한것은 76년바이에른·뮌헨팀의우승이래 7년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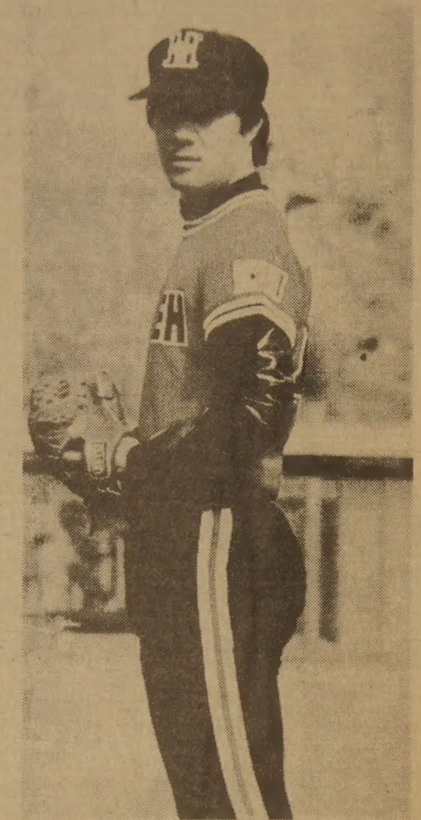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프로야구

李相潤「망각」서 돌아왔다
奪3振王 다시脚光
對롯데戰 13개 기록
高校땐타자 漢大서 어깨고장 슬럼프
金基洙씨父女도움 再起…"날듯한기분"



◇오랜 어깨고장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재기, 프로야구 최다 탈삼진(13개)을 기록한 해태 강속구투수 李相潤。

홈런 못지않은 통쾌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스트라익아웃이다。홈런王 金奉淵과 탈삼진왕(奪三振王) 李相潤을 함께 가진 프로야구팀 해태타이거스의 높은 인기를 이해할만도 하다。

漢陽大마저 포기했던 투수 李相潤(23)이 프로야구 최고의 강속구투수로 재기, 82년 12개, 83년 13개를 잇달아 최다 탈삼진 기록을 수립했다。

25일밤 라이벌 롯데의 강타자 金容哲을 KO시켜 프로야구최다탈삼진기록을 달성한 순간 光州 홈팬들은 탈슬럼프를 선언한 鄕里의 스타 李相潤에게 박수와 환호로 축하해주었다。

강속구투수 李相潤의 재기는 극적이다。그는 불우한 선수생활을 해왔다。光州 서림국민교서 처음 야구볼을만져 東新中시절 강타자로어른들의스카우트싸움에 휘말렸다。榮山浦中으로 도망, 바라던 光州一高에 입학했으나 대회때마다 불운이 겹쳐 우승컵 한번 만져보지 못했다。1학년때 대통령배대회서 받은 타격상이 고교시절 유일한 개인상。

光州一高 2학년때 감독의권유로 배트를버리고 마운드에 올라 스피드를 인정받아漢陽大로스카우트됐다。또 한차례의 시련이그를 기다리고 있었다。金始眞·金勇男 두정통파선배투수들 틈에끼여 時差投法을 익힌다며 무리하게 어깨를 쓰다 시름시름 어깨고장에 빠져들었다。그이후로 李相潤의 이름은 팬들의 망각속에 사라져 갔다。

이름밖에 아는것이 없었던 한사람의 팬, 金美慶양(22·梨大音大4년)으로 인해 연결된 지난날 철권 金基洙씨와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李相潤의 오늘은 없었을것이다。

고3시절 몰래몰래 꽃다발과 간식을 보내주곤하던 여고생팬 金美慶양은 대학생이된후에야 李相潤앞에 나타나 고장난 어깨를함께 걱정해주었다。

뒤늦게 맏딸의 첫사랑을 알아챈 前세계주니어미들급챔피언 金基洙씨가 사위처럼 李相潤을 감싸다니며 어깨치료를 서둘렀다。漢陽大 裵星瑞감독이 마침내 포기해버린듯 프로팀 해태입단에 동의, 대학을 버리고 직업선수로 나선 李相潤은 金基洙씨의 보호아래 中國人한의로부터 물리치료를받아 82년 첫시즌중반 고질적인 어깨통증을 벗어버렸다。

『지금은 날아갈것같은 기분입니다。아픈데는 전혀없어요。이젠 멋진 피칭으로 은혜를 갚을 차례지요』

왕방울눈, 고수머리, 흰피부, 빠른 볼로 여성팬들을 사로잡았던 李相潤은 13개의 최다탈삼진을 기록한후『야구선수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湖南선배金奉淵과는金基洙씨 가족과 얽힌 묘한 인연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곤한다。홈런王 金奉淵은 金基洙씨의 작은동서, 美慶양의 이모부。金奉淵을 응원하던 부녀의 정이 李相潤에게로 옮겨가 두 스타의 정겨운 시샘(?)이 그칠새 없다。【方錫鉉기자】

해태, 롯데에 完勝 프로야구

섬광을 뿌리며 李相潤의 강속구가 그라운드를 뒤흔들었다。탈삼진13개, 시속 1백47km의 쾌속구를 자랑하는 해태의 李相潤이 25일 光州홈구장에서 팬들의 열광속에 프로야구 1게임 최다 탈삼진기록을세웠다。종전기록은 李相潤 자신과 MBC의柳種兼이 82년에 남긴 12개。

MBC는 OB에 5—2로 승리, 연승을 올렸다。

◇25일전적

◆광주
롯데 000 000 000—0
해태 000 200 00×—2

◆대전
MBC 201 110 000—5
OB 000 000 002—2

▲홈런=柳承安(1회·2점) 李光殷(4회·이상 MBC)

◇중간순위 (25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삼미	18	0	12
②	해태	16	1	11
③	OB	16	0	16
④	롯데	15	0	16
⑤	MBC	14	0	18
⑥	삼성	11	1	17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스포츠話題

손해보더라도 헐값에 팔아야
슈테른誌, 車範根주택사기 폭로

◇다정했을때의 첸커부회장㊧과 車範根。그러나 첸커는 두얼굴의 사나이 였다。

西獨 주간지 슈테른은 최근호에서 아인트라흐트·프랑크푸르트팀의車範根이 주택사기 함정에 빠져 거액을날리게된 사건을 2페이지에걸쳐 상세히 보도, 사기혐의를 받고있는 프랑크푸르트구단 첸커 (Zen Ker) 부회장의 비행을 폭로했다。

슈테른誌는 車範根이 재산상의 피해에대해 앞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헐값으로 집을 내놓을수밖에 없다고 매니저의 말을 빌어 결론을 내리고 있다。다음은 슈테른誌의 기사내용을 간추린것이다。【편집자註】

집 사기를 당한 車範根。지금 택해야 할 길은 어디일까。그의 매니저는 한마디로『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파는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車範根이 첸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독일연방법 138조에 의하면「송사는 그렇게 좋은것이 못되고 무가치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어를 잘모르고서 독일금융계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없었던 車範根은 그의 동료들이 그랬던것처럼 건축업자들이 지은 집을 샀다。이집은 투기를 목적으로 지은 아주 복잡한 형태다。세금은 적게 낼수 있으나 실은 투기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車範根이 거래하고 있던 부동산저당은행인 뤼베커는 車範根의 월급(3만5천마르크)을 지난4월 담보로 차압했다。車範根은 임대료(4만5천마르크) 뿐만아니라 20만마르크의 대부금도 빚지고 있었다。

『車선수는 자기의 월급을 내놓지 않을수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곧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프랑크푸르트 부회장 볼프강·첸커는 변명했다。

그러나 첸커는 車範根의 집문제를 외면할수없는 인물。3년전 벨버트에있는 집투채를 아시아인에게 팔았는데 당시 60만마르크의 집을 90만마르크나 받았으며 또 이집을 車範根에게 비싸게 속여 팔았다。첸커는 車範根이 제값을주고 집을 샀다고주장하나 따지고보면 매매는 정당하지 않았다。

첸커는 수익사업에만 관심을 쏟고있는 인물。선수들을 보호하기에 앞서 선수들의 수입을 엿보는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詐欺혐의 첸커 선수수입 노리는人物
稅制혜택미끼 車에 비싸게 속여팔아"
西獨法律애매…提訴해도 효과없을듯

서독기업「쥬트피난즈」의 판매 책임자였을때 첸커는 약 80명의 축구선수들을 자기고객으로 확보했었다。물론 프랑크푸르트선수들도 여기에 빠질수는 없었다。

첸커는 프랑크푸르트와 무관하다고 발뺌하고있다。분데스리가 선수들은 너나 할것없이 의사나 변호사들처럼 건축업자들의 모델하우스에 미리투자를한다。

특히 재력있는 선수들에게 모여드는 투기꾼들은 세제혜택을내세워서 독물정에 어두운 선수들을 유혹한다。車範根도 여기에 말려든셈이다。

아뭏든 이번문제는 독일연방검사가 처리하게될것이다。첸커는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고있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할태세를 갖추고있다。

이번일에 대해서 진실을 알사람은 두사람밖에 없다。

이번사건으로 제기된 문제는 선수들이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宋龍 畵
曠野의 소리 ⑦
<67>

『물이 넘칠 때 깨우시지 그러셨어요、어머니』

『에미에게는 회사일보다 네 건강이 더 중요하단다』

『지금 몇시나 되었죠?』

『아마 열 한시쯤 되었을 거다』

『아이구、그렇게나요!』

『서둘지 말아라。서두른다고 앞서가는 것은 아닌것 같더라』

아버지가 쓰러진 후 터득한 그녀의 지혜인것 같았다。그렇게도 공부때문에 다달을 하던 어머니。일등을 못한다고 얼마나 준호의 머리를 쥐어박았었던가。

—그 이 세원이라는 애를 좀 보아라。부모도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늘 일등을 하지 않니?도대체 넌 뭐가 부족해서 맨날 이등이냐? 참고서를 안사주었니、학용품을 안사주었니? 효도좀 해라、효도좀 해! 느이 선생님 볼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살수가 없단 말이야。에미 창피주는게 불효지 딴게 효냐!

극성스런 치마바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어머니가 서두른다고 앞서가는것이 아니라 발언한것은 확실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던것이다。

『이왕이면 아버님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걱정말고 어서…』

『어머니、오래간만에 세식구 같이 식탁에앉고 싶어요』

본래 네 식구였지만 여동생이 시집가고 난후 이젠 다시 셋만 남은 것이었다。

『많이 드시지도 못할텐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일어섰다。준호도 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완전히 왼손과 왼발을 못쓰고있었다。한손을 짚고 일어서려는 아버지의 노력과 준호의 부축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아버지는 일어서는데 한참을 애써야했다。오래간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몸이었다。국민학교 다닐때까지만해도 아버지는 늘준호를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며 머리도감아주고 때도밀어주고 했었는데 중학교에들어가면서 준호의 사타구니에 거뭇거뭇한것이 돋기시작하자 준호쪽에서 함께 목욕가기를 슬슬피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때…아버지와 목욕을 다닐때 그는 아버지의 넓은 등을 작은 손으로 밀어주기도 했고、때로는 비누칠한 아버지의 등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는 뭐라 썼는지 알아 맞히라고 때를 쓰기도 했었다。아버지의 살결은 귀공자처럼 희었고、근육은 희랍의 조각처럼 완강하였다。그는 언제나 준호에게 인생의 표준이었고 모형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팔은 지금 준호의손안에서 마른 나무토막 처럼 시들어져 있었다。준호는 자꾸만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그 어렸을때 아버지의 넓은 등에다 무슨 글자를 썼었던가 생각하고 있었다。

도무지 그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있었다。그러나 그 작은 손가락으로 썼던 글씨들은 어린 준호의 영롱한 꿈과 찬란한 미래들을 모조리 머금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그러길래 그것은 날이 갈수록 가슴 저려오는 추억으로 새겨지고 있었을 것이다。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 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훈

마초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점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초
전화: (B) 532-0206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집에서 재봉일 하실분 구함.
아주 간단한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전화 : 474-9224(낮) Markham지역.

—자개 기술자 구함 에코시 가구점
(Mother of Pearl Technician)
—Abalone Shell Insetter
Antique Chest for Korean.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Mrs.김

도나스 숍에서 일할 유경험자 구함.
다운타운지역. 도나스 숍에서 커피 만들어보신 분 우대.
전화 : 368-8834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방학동안(6~8월말까지) Store Manager로 성심껏 일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Store에서 다년간 Manager로 일한 경험있음.
Mr. 박 530-1838(오후5시이후 전화요망)

Student Wanted
(Gain Gas Bar Attendent)
Add : 877 Dundas St. W.

도넛숍에서 밤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끝.
전화 : 282-0634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학생 Part Time Store 헬퍼구함.
(Kipling & Albion 지역) 오후부터 시작.
전화 : 741-7692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밑반찬 만드실 경험있는 분 구함.
직접 내방 바람.
주소 : 5568 Yonge St. 동아식품.

양장과 양복 재봉기술자 구합니다.
보수 주 250불 이상.
전화 : 366-0459. Mr. 강.

▲씨알 한국인학교에서 여름에 일할 대학생 운전수를 구함. 주급 $200.
▲교사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동안만 Internship으로 일할 대학생 구함.
8주 주급 $175. 이력서를 150 Madison Ave. Tor. M5R 2S5로 보내주시기 바람.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CHARGEX VISA master charge

매 매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특별 Dieter's Tea 판매중.
중국처방 화공약품 가미안한 자연목차.
전화 : 656-8080 (체중감량 즉효)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시간짧과 이윤 좋은 가게 급매.
주매상 $3,200. 리스 4년. Rent $500.
가격 : 2만8천불. 전화 : 654-4709

큰 몰안에 있는 선물센타(Gift Shop)급매
리스 1992년까지.여자 혼자 운영가능.
전화 : 633-7479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o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드라이크리너(Depot) 픽업스토어.
또는 Shoe Repair 팝니다.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4327.

위치좋고 Parking 장소 넓은
Driving Hamberger Place 팝니다.
주매상 $6,000. 렌트 $2,300.
리스 1990 + 5년옵숀. Asking $16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Mrs. 우.

번화가 뱅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섬마린 빵가게 급매.
(1)가족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규모. (2)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매상. (3)월 이익금 5,000불 이상 보장. (4)양도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및 운영의 편의제공. 사업관계로 좋은 조건에 양도코자 함. 전화 : (604)875-8623. 밤 872-5593.
주소 : 1063 Davie St. Vancouver B.C. V6E 1M5 (Mr. Kim)

76년 Bonair Hard Top Trailer (6명용 장비포함) 급매코자 함.
전화 : 298-0354. Mr. Ye(오후5시이후, 주중연락)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전망 좋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세일.
새로 셋업한 스토아임.
40스토아중 5스토아 오픈된 컴플렉스 몰에 위치.
(Yonge & Orchard Heights Blvd. in Aurora)
스토아를 새로 셋압하시고 싶은 분께 최적합.
전화 : 742-0412. 1-727-5902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New Plaza(Yonge & North HWY 7)에 위치하고 있는 콘비니언스 스토아 급매. Asking $3만4천 + Stock.
전화 : 492-9031. Mr. Tam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 $5,000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베드룸. 전화 : 781-7080

---

(1) 레스토랑 팔거나 또는 렌트함.
(2) 스토아 렌트. 좋은 사업전망.
St. Clair & Keele 전화:532-8227. George.

Variety & Convenience Store 급매.
새 프라자안에 있음. 좋은 사업임.
(Located next to Swiss Chalet & Canadian Tire).
9625 Yonge ST.(at Yonge & Weldrick). 전화 : 884-5785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그로서리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 + Lotto. 주매상 $1만1천 + $1,300(Lotto). Asking $9만 + 스탁(현찰8만불).
No meat, no delivery. 1-514-364-4627 Mr.송

후렌차이스 스토아 급매.
주매상 $7,500. 권리금 $19,500+스탁.
캐쉬원함. 전화 : 223-4748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923(B) 이송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부엌달린 방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 이민 온 부부임. Room 하나, 혹은 지하실 방도 무방함.(6월1일 입주희망)
전화 : 360-1790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구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호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한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